朝鮮日報 夕刊
二十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每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漢陽タクシー 鍾路二丁目 電話光 二○○二番 二○○三番

今朝에는 支那大造船所爆破!

【上海廿日發同盟至急報】我○○機○機는 今朝七時부터 南市의 江南機器局과 傳車場一帶에 盛히 爆彈을 投下, 支那有數의 造船所인 江南機器局을 完全히 爆破하엿다

外艦轉錨要求

日本軍艦에서 五哩相距로

國府、英米佛伊에 通告

【上海十九日發同盟】南京政府는 十九日 午後七時 上海市政府를 通하야 英米佛伊總領事及 在上海外國先任指揮官에 對하야 左와如히 無法한 通告를 하야왓다

一、黃浦江上의 各國軍艦은 日本軍艦으로부터 五哩以上相距되는 地點으로 轉錨할것

一、萬若右轉錨가不可能한境遇各國은日本當局에勸告하야 日本軍艦으로하야금英米佛伊等軍艦으로부터五哩以上의地點에碇泊케할것

一、前記의二項을 實現치안흘 境遇에는 支那政府는 今後 惹起할만한事態에 對한責任을負치안이함

今曉長驅漢口爆擊!

【上海二十日發同盟至急報】我海軍機는 今朝 曉雲을 衝하고 長驅漢口上空에 나타나 飛行場及 軍需工場一帶를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敵軍陣勢動搖

【上海十九日發同盟】午後八時五十分海軍武官室發表

一、今日夕刻八字路附近에 敵의一小部隊가 侵入한것을 發見하고 即時 陸戰隊○○部隊가 出動하야 이를 掃蕩하얏다 右敵은 工部局米倉을 占領、屋上에 機關銃數門을 配置하고 그前方數百米의곳의 四個所에 土囊陣地를 構築하엿는데 江灣方面으로부터 進出한部隊인것으로認定된다 그리고我航空隊의 爆擊에依하야 그兵站地區가 爆破되여 食糧에 窮하야 不得已 侵入한것으로 認定된다 敵의給與는 極度로 不良하야十九日 外國軍隊에 砲彈을 팔러오는 支那兵多數가잇는데 銃砲彈百發 一弗이라한다 이것은 昭和七年의 上海事變當時에 잇서敵의退却前의 狀態와同一하다

一、海軍○○航空隊는 今十九日 또南京을 空襲하야 敵火藥庫를 爆破하야 國民政府를 震駭케하엿다

第二段의本格的 戰時體制에進入

南總督、各界有力者를招集코 一致協力을再要請

暴戾한支那의 迷蒙으로 帝國의隱忍自重도 그極에達하야 事態는 바야흐로 假借를不許하야 日支兩國의 全面的危急을 告하게되엿스므로 我國은 決意를새롭게하게되여 마침내 擧國一致를 强化徹底할 必要가잇서서 南總督은 半島全民衆에對하야 一層의緊張과 奮起를促하고저 今二十日總督府高等官以上及 第一次所屬官署長 各道知事、中樞院顧問、參議와朝鮮人有力者等을 午前午後에 亘하야 總督府에招集하고 去七月十三日과가티 時局에對한 協力을要求하엿다 當時의事態와 今日의事態는 顯著히 緊迫한것을述하고 時局認識을强調하야 支那의 無反省、無謀는 벌서容赦할수업는바로 帝國의 不擴大方針에依한 隱忍自重도 그爆發點에達하야 第二段의本格的戰時體制에드러갓다 는旨를述하야 訓示又는 懇談에서 最惡의境遇에 備하야 內鮮一體、官民一致의 實을擧하야 强化하야 微動지도안는 半島의地位確保에 邁進하고저 要望하엿다

▲午前九時(第一會議室) 總督府高等官以上及 第一次所屬官署長 百五十名 參集하야 南總督으로부터 重要訓示를밧고 各局課長과 所屬官署長은 各其部下에 對하야 그決意를 傳하엿다

▲午前十時(總督室) 非常招集을바든 十三道知事出席하야 本府各局長 官房課長 列席下에 南總督으로부터 時艱克服을爲하야 地方官民의 協力一致에萬全을 期할旨의 重要訓示를밧고 各道知事로부터 若干管內特異事項에對한 報告가잇슨後 散會

▲午前十一時半(第一會議室) 新聞通信關係代表者 二十餘名出席하야 時局의 重大性을强調하고 民心의 歸一領導에關하야 積極的協力을要求하야 여러가지로 懇談을遂하엿다

▲午後一時(第二會議室) 鮮內財界有力者 三十三名出席하야 時局에對한 奮起를要望하고 散會

▲午後二時(第一會議室) 中樞院顧問 參議其他 朝鮮人有力者 約七十名을 招致하고 今日까지 朝鮮人側의 熱烈한協力을 謝하는同時에 今後의 重大危局에는 微動도아닐 決意에對하야 民衆에 그趣旨를徹底시킬것을 要望하엿다

局打破에 對하야 出席者一同은 모도 滿腔의 感激을하고 그趣旨徹底에 努力할것을 誓하엿다 그리고 午後二時半부터 大野政務總監은 朝鮮貴族과 元官吏로서 樞要의地位에 잇는 朝鮮人有志約百五十名을 第一會議室에 招致하고 南總督의 訓示趣旨를 敷衍하야 時局에處할 協力을要望하는바 잇섯다(寫眞은南總督)

總督訓示要旨

知事會議에서의 總督訓示는如左하다

今日 再次諸位의 會同을 煩거럽게한것은 今回새로 上海事變及 北支南口에 잇서서의 中央軍과의 衝突을 契機로하야 日支間의 時局이 더욱一層發展하야 드디여 全面的交戰의 不可避한情勢에 到達하야 我帝國의 方針態度에도 一大變化를 發生케된事實에 鑑하야 새로 諸位의注意를 喚起하고 當面의機務上 牢乎한 決心과持久堅忍의 覺悟를 促하기爲함이다

道知事會議席上에서訓示하는南總督

去七月八日以來約一個月에亘하야北支에서는 皇軍의 威武에依하야平津一帶로부터 二十九軍을完全히 掃蕩하야 漸次秩序가回復되고잇스므로 外面的으로는大體로解決點에 到着한것가티 생각되엇다 그러나 南京政府에서는 그後依然히 抗日軍事手段에依한擴大主義下에 平漢線、津浦線一帶에는 敗殘兵을 再編成하는同時에 中央軍의 大部隊를 北上시키여 梅津何應欽協定을 無視하고決戰的態度를 取하며또綏遠方面의中央軍은 長城線에 據하야 河北의背後를 脅威하야 드듸여 南口의 戰鬪를惹起하는等 平津을包含한 河北省北部는 主戰意識이 熾烈한 支那軍에게 三方으로包圍된 實情에잇다 이런狀態下에잇서서는 帝國及皇軍의 不擴大方針은 完全히 支那側에게 蹂躪된것이다 그우에 上海에서는 大山事件에 繼續하야 支那正規軍의 停戰協定을 無視한 租界攻擊을 發端으로하야 極端的으로 事態가 惡化하엿다 帝國海軍은여기에서도不擴大方針을取하여 我陸戰隊로하여금 居留民及權益保護의守勢的應戰의 態度를 取함에그첫스나 支那空軍이 國際慣例를 無視하고 人道를蹂躪한 數次의 空爆을敢行하엿스므로 完全히帝國의方針을 破壞하게되여 드디여 我海軍航空部隊는 支那空軍根據地에 殲滅的爆擊을敢行하게 되엇든것이다 如斯히하야 北支方面의情勢와 中支의情勢와를 合하여생각하면 帝國이只今까지 可及的으로取하여온 不擴大方針은 이미支那側에게蹂躪되는바되여 그趣旨의實現은事實上不可能하게되엇슬뿐아니라 我로明白하게되엿다

不擴大方針이 오히려 支那로하여금 더욱禍心을더하게하야 反人道的인 禍害를 擴大케한結果로 되엿든것도 또한明白히된다 이에잇서 帝國으로서는 從來의 不擴大方針을 一擲하고 斷乎支那를膺懲하야 致命的 打擊을주어서 抗日意識을 拋棄케함에 適切有效한 行動을取하기로 決定한것으로 換言하면 北支事變은 對支事變으로되고 不擴大方針은膺懲方針으로되엿다 이決心의變轉은 오히려 너무나느젓슴만치忍耐한것이다 即 過去一個月間에 亘한 支那側의 抗日挑戰的不信行爲는 드디여現時局을 一層深刻하게하엿스므로國民은 從來보다더한층 大覺悟를必要하게되는段階에 達한것을意味하는것으로 地方牧民의 任에잇는諸位는 特히새로운見解에基하야 現在及將來의 重大性을 諒得하야 今後의機務에 善處하기를切望한다 過般北支事變勃發直後招集한知事會議의 席上、訓示한三項目의 趣旨는 其後各位의 適切한計畫指導에 依하야半島民衆으로하야금 잘時局을 認識시키고 內鮮一體、擧國一致의 觀念을喚起하며 또銃後의 國民의任務遂行을 具現식히는等着着愛國的思想과 行爲를 發顯하야온것은 참으로同慶하는바이다 此機會에 感謝의意를表한다 前述事態의 新展開及이에 對한新見解와 覺悟下에 今後半島在住民은 무엇을해야하고 무엇을안해야할것인가하면 大體다음의 主要項目을遂行에 邁進할것이라고생각한다

其一、前回會議에서말한 時局認識、帝國의世界的地位、支那란 것을 理解식힐것 세가지趣旨를 더욱더强化徹底식힐것

其二、時局은 相當長期로나갈 것을覺悟하야 熱心히 諸施設을 遂行시킬것 短時日間에 結末될 것이라는 樂觀的專斷을嚴戒할것

其三、諸產業의急速且大規模한 開發進展에 官民協力하야 努力할것

現下非常時局을 超越하야 戰時體制의 躍進하는 半島民의微動도안는 態度養成의 根本은如上三要綱實行具現에잇다 大槪이에依하야 鞏固한精神力 堅實한思想力、旺盛한生產力、經濟力을 培養할수잇는 所以이다

此等의要素는 益益 重大化하야가는 今後의 時局에 處하야 참으로 國家의目的遂行上 必須업는것인데 特히 大陸에 足場을가진 特殊重要地域 朝鮮에잇는者의 使命을다할 根基가 되지안흐면 안된다 이를 簡單히 말할뿐아니고 實際로 힘잇게實現하야가자면 不撓의 大信念、大氣魄으로 傀儡的이 되든 勿論 官民一體로되여 이信念、氣魄을 굿게하며 또한大시키지안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現我帝國은 東洋平和建設의理想을不動의境地에 樹立할 段階에서고잇다 故로 將來東亞의禍根으로 될것은 速히 淸掃하야 日滿二大國民과 支那國民으로하야곰 東洋은 東洋人의손으로서한가지 福祉를 누려서大平和를享受하야 東方道義를 發揚하야 東洋文化를 完成하는歷史的道義의起端에 天意로써立한것이라 할것이다

此의要求를 爲한犧牲은決코 적지안흘것이다 吾等國民으로서는此犧牲을 單히第一線에서 싸우는皇軍에게만 偏重케하지말고 全國民一齊히 此를分擔할決心으로 銃後의 任務를完全히하야 조금도遺憾의 點이잇서서는안된다 最後로北支及上海의 赫赫한武勳을樹立하는 皇軍將兵의 勞苦에感謝하는同時에 皇軍의 戰死者及通州를 爲始하야 各地에서 兇暴한支那軍에게 虐殺된同胞의 靈에對하야深厚한 哀悼의意를表하야 本訓示를마친다

昭和十二年八月二十日

朝鮮總督 南次郎

(寫眞은 南總督及道知事會議)

不擴大主義에서 膺懲主義로轉換

言論界代表招請席上 南總督三大方針表明

南總督은 二十日午前十一時半市內各言論機關首腦者를 總督府第二會議室에 招請하고 時局再認識에 關하야 第二次로 懇談을 하엿는데 그大要는 如左하다

帝國은 去月十一日 閣議에서北支事變을認定하고 現地協定不擴大主義를 가지고 中外에 聲明한以來 그方針을 堅持하여왓다 그러나 그後南口戰鬪는 確實히 中央軍의 現地協定과不擴大方針을 無視한것이오 上海事變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할것도업시 支那側의協定無視에 基因한것이다 이와가티 支那側의 背反에依하야 事變은 北支에 局限된것이 아니요 對支事變으로 變하엿다 이에 帝國도 隱忍自重하든 從來의 現地協定、事件不擴大主義를 버리고 斷然對支膺懲主義로 轉換하엿다 그러면 이新事態에 對하야 國民은 어떠한 態度를 가저야 될것인가

一、從來에 말한바와가티 時局認識을 徹底히할것、日本의國地와 東洋의 安定勢力이라는 것을알어야할것、支那는 엇더한나라라는것을 더욱잘알어야 할것

二、時局解決이 長久하겟다는 것을알어야할것이오 堅忍持久의 精神을가저야할것

三、時局이정말 重大한것을알어야한다 다시말하면 支那膺懲의 目的을 達成한다할지라도 이로써 곳時局의 解決되는것으로알어서는안된다 그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問題 國際關係等을考慮하야 참으로 重大한覺悟를 가저야할것

等 세가지를 널리 認識식혀야 할것이니 特히 言論界諸君의 協力을 求하는바이다

001649

各道知事今日歸任

非常時局再認識에對하야 二十日 緊急招集된各道知事는 爲先大槪의 緊急事務만 各局課와協議折衝한後 當日밤까지 全部歸任하야 緊急郡守會議、道會議員會議等을開催하고 時局再認識을 强調하야 協力善處를 求하기로되엿다

八面鋒

◇時局再檢討、擧國一體顯現을爲하야 南總督이 官民各方面을 請하야 再訓示再懇談。

◇뒤를니어 일어 나는時局運動이 잇슬것이 조치아니한것이잇스랴만은 여기에도 統制가必要。

◇臨時議會도 九月三日召集으로確定。

◇정말戰時體制의 行進이 展開될順序。

◇官民二려하려니와 民은그야말로 처음當하는時局이니만치 徹底한 차림차림이 잇서야할일。

◇무엇보다도먼저 알리어야된다、認識은앎음으로 비롯하는 것이니 정말時局이어떠한것을 알려야할것。

號外四次發行

本社는上海事件으로 十九日午後부터 二十日午前사이에 四次號外를發行하엿읍니다

戰鬪中止案 實現性殆無

【倫敦十九日發同盟】英政府提唱의 上海의 戰鬪中止案에 對하야 十九日 佛國政府가 贊成의意를 表하엿스나 其他의 日支米各國에는 異議가잇서 實現可能性은 殆無하다 더욱이 英政府도 最初의戰鬪中止案의實現을 期待치안는모양으로 다만上海의英國權益을 一時的이라도 放棄할意向이 업는것을表示하는것이 今回提案한 動機이엿다한다 去十七日 五相會議의 方針이 決定되기까지는 英國居留民의 總撤退乃至 英國人의 營業一時停止等의風說이流布되엿스므로 이를一掃하기爲하야 香港及 新嘉坡駐屯軍을 上海로 派遣하야 戰鬪中止案提唱을 決定하엿다한다

中立法不發動 뉴욕타임스紙贊成

【紐育十九日發同盟】紐育타임스紙는 十九日紙上에서 「我東亞政策」이라 題하는社說을 揭載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米國政府는 現在中立法을 發動시키지안흘 意向을 明白히하엿는데 이往意기든政策은 實際的價値가잇다 日支兩國은아직 正式으로 外交關係를 斷絶하지안흔이上 衝突이 延長되는것을 막을希望이 업는 것도아니다 今回日支紛爭에 對하야 第三國인 米國이 戰爭狀態의 存在를宣言하면 兩國政府에 조금이나마 存在한 和平解決의機會를 일케하는 것은 疑問이업다 그러나 이는 一方米國人의地位를 惡化할뿐이다 米國이 現在事變에對하야 日支兩國에 金融關係를 保全하고잇는것으로 發生하리라고 ... 보더라도 適當하지안타

米國靜觀態度 戰鬪中止案에

【紐育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의 提案인 上海戰鬪中止案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아직 正式態度를 表明치안하스나 傳하는바에依하면 米國政府는 戰鬪中止案에 그리 熱意를 보이지안는模樣으로 英佛兩國과 共同動作은 回避하고 依然 靜觀主義를 取할 意向인듯하다

今朝來의 兩空軍爆擊戰

【上海二十日發同盟】今朝는 靑空이 노푸고 白雲이 亂飛하는快晴인데 未明부터 彼我雙方의 飛行機가서로 陣地上空에 飛來하야 爆擊戰이 버러젓다 今朝九時五分我海軍○○機○○機는 上海支那街南市의 敵兵營을 爆擊하야 火災가 沖天하엿는데 敵高射砲彈은 空中에 黑煙을 뿌리고 쓸러간다 이보다먼저 午前七時五十分지나 敵機는 虹口上空에 飛來하엿더니 곳 降下하야 爆彈을 投下하엿스나 我地上部隊의 猛射로 即時逃亡하엿다 또 我○○機는 浦東敵陣地를 爆擊하야 午後九時四十分現在까지 아직 繼續되여 爆彈炸裂하는 轟音은 天地를 震撼하고잇다

支那參謀本部及軍官學校爆破!

【東京電話】海軍에서는 二十日 午前十一時 副官談形式으로써 上海의 一般戰況에 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海軍省副官談=昨十九日午後 我○○海軍航空部隊의 南京火藥廠爆擊에 繼續하야 ○○航空部隊의○○機는 同夜八時부터 南京參謀本部 軍官學校를 爆擊하야 約十發式爆彈을 命中케하야 校內各處에 大火災를 이르켯다 我方에는 損害가업고 夜間飛行을 敢行하면서 全機無事히 歸還하얏다

戰時糧食管理令

國府十八日附로公布

【上海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는 十八日附戰時糧食管理令을 公布하엿는데 此는生產、消費、價格運輸及貿易統制分配의 各部門에亘한 戰時糧食의管理를 行하려는것이다

【上海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는 十八日附로서 戰時糧食管理條令을 公布하엿다 同條令內容은 左와如하다

▲第一條 戰時糧食管理는 本條令에依하야行함

▲第二條 戰時管理를바들 糧食의種類는 따로 國民政府命令으로써定함

▲第三條 中央에戰時糧食管理局을 設置하고 各省重要地點에 分局을設置함

▲第四條 戰時糧食管理局의管理事項은 左와如하다

(가) 生產 (나) 消費 (다) 貯藏 (라) 價格 (마) 運輸 (바) 貿易 (사) 統制及分配

自衛上不得已!

英國의上海撤兵要求를 堀內次官婉曲히拒否

【東京電話同盟】駐日英國代理大使 도스氏는 十八日外務省에 堀內次官을 訪問하고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現下의 上海問題에關하야 日支雙方이 上海地方에서 兵力을撤收함에 同意한다면 英政府는 諸國과함께 上海在住日本人의 保護를 引受할用意가 잇다는旨를 申請하엿는데 堀內次官은 十九日午後도스代理大使의 來訪을 求하야 左와如한 回答을하고 我方의 立場을 明白히하엿다

記者 英米佛獨伊五個國大使로부터 上海問題의 平和的解決에對하야 提案하여슬때에도 帝國은 그提案에對하야 愼重히 好意的考慮를 加하엿슴에 不拘하고 支那에서는 何等具體的意思表示를 하지안흘뿐아니라 益益 我方에對한 不法行爲를 强行하야 上海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產이 非常한危險에 暴露된것은 承知하는바와갓다 帝國政府로서는 此等多數한 居留民의 生命財產保護의 責任을 外國에 委託하는 實務를 感하는바로 이居留民保護에 關하야 스스로 重大한 責任을 諒承하야 주기바란다 그러나 帝國政府는 租界內의 內外人의 生命財產의 安全을 考慮함에 決코 外國에 떠러지는것은아니다 帝國政府는 支那正規軍及 保安隊가 一九三二年의 停戰區域外로 撤退하고 一時라도速히 戰鬪를 中止시킬것을 切望하는바이다 大體로 今回 上海事件發生의 最大原因은 支那側이 이協定을無視하고 正規兵及 保安隊를 協定區域으로 侵入시키여 我方에 大脅威를 준點에 잇다 我方은 此等不法侵入한 支那軍의 撤退實現을 爲하야 停戰協定의成立에 가진그미푸르엔스를 加하기를 希望한다

國府防空法公布

【上海二十日發同盟】首都南京을 爲始하야 奧地各飛行根據地에對한 我海軍航空部隊의 勇猛果敢한 空襲으로 國民政府는 크게狼狽하야 遲延되엿든 防空法을 制定公布하엿다 同法은 全國民의 防空에 必要한 物質과 勞務提供의 義務를 規定하엿다 其他國民法에 違反치안는範圍內에서 支那에 在住한 外國人도 亦是防空에 參加할 義務가잇다는것을 規定한것이다

天津蘇總領事館閉鎖 帝國不關의旨를聲明

【莫斯科十九日發同盟】莫斯科駐剳帝國大使館은 天津蘇聯總領事館襲擊事件에 關한 蘇聯側의 虛構的宣傳에 對抗하야 右事件은 赤白露人間의 內訌으로서 日本의全然關知할바아니라는 旨의聲明을發表하야 去十六日 莫斯科駐在各國大公使館及 外國新聞通信員一同에 配布하엿다 이에關하야 十九日紙上에서 同紙主幹 스탄스키氏의反駁文을 揭載하야 今回의重光大使의 行動을 反蘇的行爲라하엿스나 그論調는자못浮薄的이엿다 在莫斯科外交團에서는 그論調를 批評하고잇다

兵、便衣隊混合으로 執拗하게抵抗

【上海十九日發同盟】今夕 楊樹浦○○碼頭까까운 公平路方面에 正規兵을 交한 便衣隊一隊가 드러와 繼續的으로 我方에 發砲하며 와슴으로 ○○部隊가 出動하야 이를 擊退하엿는데 敵은 月明을利用하야 執拗한 挑戰을 繼續하고잇다

各租界避難民放逐

【上海二十日發同盟】租界內에 殺到한避難民은 그數를 增加하야 人氣도또한 漸次惡化하고잇는데 佛租界當局은 十九日부터 一部避難民을 租界外로放逐하고 治安維持에 萬全을期하고 잇는데 共同租界當局도 黃浦江上에 面한 빈베드附近에 集中하는것을 放逐하야 同所의安全을 期하고잇다 이는外國婦女子가 避難乘船하기爲하야 同所를 頻繁히 通過함에對하야 此等避難民이 執拗하야 金錢其他를 强要하야 危險이 非常히 增大하엿기때문이다

國籍不明外艦이 西政府汽船擊沈

【이스탄불(土耳其)十九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側汽船 알데가號(二、七六二噸)는 十八日午後五時 蘇聯產小麥을 積載하고 西班牙本國으로 向하야 다다넬스海峽附近을 航行中 突然國籍不明의 潛水艦에 攻擊되여 沈沒되엿다 但 乘組員은 附近航行中의 土耳其汽船에게 救助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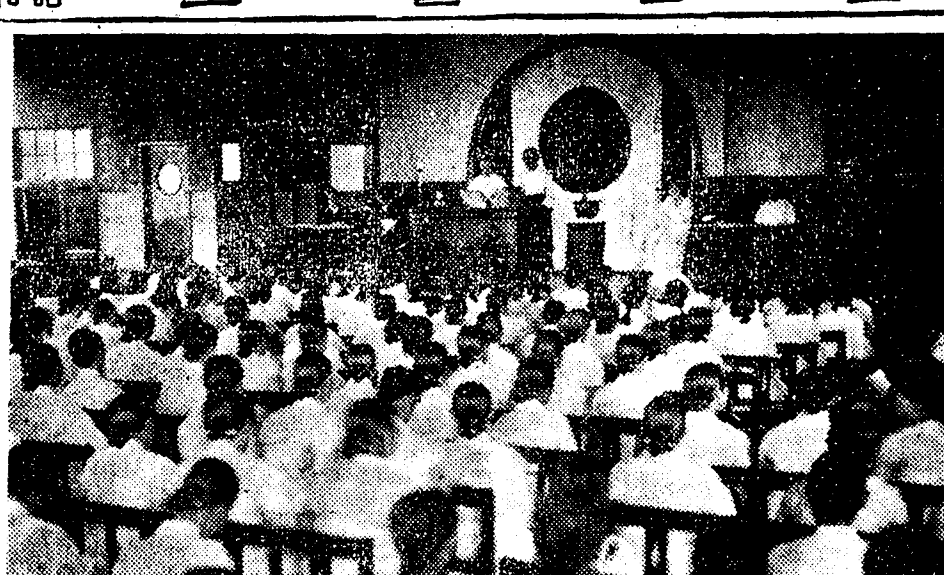
外國銀行引續休業

【上海十九日發同盟】外國爲替銀行組合에서는 十九日午前後二時에亘하야 차타드방크樓上에서 繼續會議를열고 邦人銀行을 비롯하야 全外國銀行代表者가 出席하야 協議한結果、今週末까지 繼續하야 休業하기로되엿다 그리고그동안上海附近이 小康狀態로되여 人心이 安定되면 다시協議하기로決定하엿다

三百五十萬圓負債 即時支拂을交涉
在留支那商人去來不拂과 外務警務兩當局서嚴警戒

고국의 급박한풍운에 놀래여 류지나인들은 최근매일이천 내지삼천의 철귀자를보게되는데 총독부외무부에도달된 보고에의하면 이들중전조선에 산재하야잇는 약이백오십명의 거상들은 내선인거래처에갑을외상갑시 삼백오십만원에 달한다고한다 이중일부 지나인들은 시국의급박과 돌연귀국을 리유로 약삼십만원의 외상가의지불을 거절한다하야 채권관계자들이 십구일 총독부외무부에다시 진정한바잇섯는데 총독부외무부에서는 즉시 경성주재지나총령사관에 교섭하야전거지불거절의 불가를 엄중항의한후철귀하는 지나인의전반적부채(삼백오십만원)를 급속히청산하도록요구한바잇섯다한다 그런데 전조선을망라한 이백오십인에 삼백오십만원이나 되는 금액이므로 혹은 압흐로계속하야 이따위지불거절의 지나인이 속출하지나아니할가하야 외무부에서 경무국과 협력하야 이에대한 단속을엄중철저히 하기로되엇다

八百餘婦女參集 盛大한發會式
即席에서金釵十三個를獻納 今日愛國金釵會結成



그동안준비를거듭하야 내려오든 시국부인단체『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의발회식은 이십일오전열시사십오분부터 경성녀자고보강당에서 소기(小磯)군사령관부인 총독부각국장부인이하조선부인팔백명이참집하야 성대히열렷다 선은김활란(金活蘭)녀사의개회사를비롯하야 황거요배(皇居遙拜)로부터시작하야 국가합창후윤덕영(尹德榮)자작부인 김복수(金福綏)녀사가좌장이되여 다음과가튼 취지선언을만장일치로 가결하고다음으로 규약을의정한후측석에서 좌장을본회회장으로 추천한후간사서른네명을 선임하고 회장의 식사가잇슨다음 그회명목으로 북지제일선에 활약중인○○부대장에게 위문전보를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래빈으로 남총독부인축사(代讀)가 잇슨후 량폐하 만세를봉창하고 성황속에 산회하엿는데 석장에서 금비녀열세개를비롯하야 오십여점의장신구헌납이잇섯다 이날D·K에서는 전국에중계방송을하엿다 발회식산회후 일동은조선신궁에참배하야 황군장사의 무운장구를빌어 조선부인의애국정신을유감업시 발휘하엿스며 다시오후네시반에는 경성역에모혀 이날북지로부터도라오는『매연』는용사』들의유골을마지하기로되엿다 그러고회의취지서는다음과갓다

취지서

동아의풍운이 북지에이러나서 우리나라의군인들은 당당히 불법폭의의 완만한무리를 징계하고잇습니다 이것이실로 나라의비상한때입니다

남자는 의(義)의칼을 두루며 신성한전장에 서고잇습니다 우리부녀자는 아모리 섬약한몸이라할지라도 안한하게이것을 안저서보기만 하겟슴니까 이때를당하야 우리들조선녀성은 분기하야 서로의론하고『애국금차회』를조직하야 내선일체로피차의힘을합하야 황군의행동을도와서 국은의 만분지일이라도보답할까하오니 섬약한 우리들의 자근정성이 황국의행동을도음에 조금이라도유조하게되면 만행일까 하나이다 장안장외의 우리녀성은 다투어찬성하야주시기를바라나이다

소화십이년팔월 일

애국금차회

(사진은 발회식 회장)

朝鮮人의獻金額 百十萬圓을突破
過去六年間分과同額

북지사변이래 조선인사의 애국지성은 최고조에달하야 당국자를 감격식히고잇는데 애국부(愛國部)에 헌금된 총액은 십팔일까지에 백십만구천팔백륙십오원삼십일전에 달하엿는데 그중 조선방공기재비(防空器材費)는 백여만사천칠백륙십삼원 사십일전 휼병금은 팔만칠천팔십원오십삼전 기타가 구천십구원삼십칠전이다 이것은 겨우사십일동안에 모힌것으로 만주사변후 북지사변에일으는 약륙개년동안의 헌금액과 거이가튼정도로 얼마나 총후의열성이 굉장한가를 짐작할수잇다

今夜는方應謨氏
時局認識講演放送

북지사변이래 경성방송국에서는 일반의시국인식을 집게하기위하야 서내의저명인사를 총동원식혀 시국강연을 계속하여왓는데 이번일은 시국강연제륙일로 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가 극동평화와지나의배일(排日)원인이라는제목으로 지나는쓸데업는 배일을방산이어 제국에 조력하야 극동의 평화를 교란식힘으로 일본제국은 극동화란이되는 지나의배일을 절멸케하야 극동평화를확립식히려한다는 내용의 강연을할터이라한다

昌德宮防護團 어십일에결성

리왕직(李王職)에서는 창덕궁특별방호단(昌德宮特別防護團)을 결성키로되여 이십일 오전십일시부터창덕궁비원(秘苑)에서 지하(志賀)단장이하단원어백구십사명이참집하여조전(篠田)리왕직장관 경성부방호단송도(松島)부단장등 렴석하에결단식을 거행하엿다

激戰後의共匪 死體遺棄逃走
對岸情勢頗險惡

【咸興】 삼수도구두메에잇는 공비 김일성(金日成)의일파는최근 동구상관방자(上官房子)부근에잇는 집단부락건설을방해하고잇다는정보를듯고 거기에주둔하고잇든 만포혜산경비대(滿浦惠山警備隊)제삼려단(第三旅團)경중위계엄을하고잇는 보병제삼련 이개배(排)와 길주대(吉州隊)에잇는 제일개배(排)재어의도발에 출동하엿는데 십사일오후구시에 길주대부근에서약사십명의 그공비단과맛다처서로두서간이나 격전하엿다 공비측에서 시체두개를 유기、부상자십여명이나 되얏스며 권총일정 탄약실첩발을 버리고 다라낫다고한다 최근 각공비들은 면혼밀정을 파견하야 경비상황을 조사하고잇스며 경안습격의 기회를 엿보고잇는데 그형세가 자못 급한배잇다

初等教員에게 防空講習

경성부내공립보통학교교원회에서는 사백여명의 전직원에게 방공지식(防空知識)을 열리기위하야 이십이일부터 이십오일까지(매일오후두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덕수공립보통학교(德壽公普校)에서 방공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강사는 경성부촉탁사교대좌(舳橋大佐)이십사단사령부웅곡소좌(熊谷少佐) 사단병계부선교대위(船橋大尉) 국방화학협회(國防化學協會) 정상(井上)씨 경성부위생과장 적야(荻野)씨등이라한다

朝鮮內六處領事館 全部撤退를決定
京城總領事만當分間在留 事變과支那外交官의動靜

북지(北支)전화(戰火)가 다시 남지(南支)에 옴겨붓기시작하자 부산(釜山)주재중화민국령사관을 비롯하야 경성주재령사등 지나국민정부외교관의 철귀가 개시되엿다 조선내에 주재하여잇는 지나외교기관으로는 경성의 중화민국총령사관을 비롯하야 부산、인천(仁川)원산(元山)진남포(鎭南浦)신의주(新義州)등 륙개소령사관이엇는데 부산령사관은 이미철귀하엿스므로 현재오개소령사관이잇슬뿐이다 그런데 이개소령사관중에 인천、원산、부산、신의주、진남포등 오개소령사관은 이미철귀하기로 결정하고 방금그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그리고 경성총령사관만 나머잇서 경성、인천등각처에 산재하야잇는 재류지나인의 철귀에대한 알선기타보호사무에 종사할터이라한다

殊常支那人은 阿片密輸者?

원적을 산동성제성현(山東省諸城縣)에두고 현재시내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외십오호에사는 지나인무직 유광운(劉廣雲)(四)은 근일 행동이 수상하다는 소문을드른 룡산서고등계에서는 진장리에 그를 그외집에서 체포한후 가택수색을한결과 그는『아편』중독자로 아편시실원어치와 아편주사기도 압수하는 동시에 동국중의 본적 선천읍 천북동(宣川邑 川北洞)이백사십팔 현주 동번지 거주의 자동차운전수 정만근(鄭萬根)(二七)을 동고 아편밀수어의 혐의가 농후하야 방금 엄중히 취조중이라는데 려기 정만근은 약삼오월전에 신경(新京)봉천(奉天)옴겨처 엄중하엿든점으로보아 혹은 국제적아편밀수단이나 아닌가하고 압수한 아편을 경찰부로보내여 감정케 하엿다는데 추후가 자못 주목된다

在上海朝鮮人同胞 百名은이미撤歸
殘餘三百名은救護中

황군의 위력을신뢰한 재지조선인은 북지로 상해로긴밀하게 내선협력을 보이고잇다 원전(原田)경무국 상해특파원으로부터 온보고에의하면 재상해조선인사백여명중에 백여명은 이미내지를경유하야 철퇴의 도상에오르고 남어잇는 삼백여명은 황군의두터운 보호아래 목하그철퇴에대하야 선중수배중이다 그들은 십구일남자일동 총동원으로포탄이 내리는중에도 황군의탄약운반등을 조력하며 내지인의자경단과협력하야치안유지에 당하고잇다 그중에도 지금까지 일본조게에잇기를 실허하고 모종의공을꾸고불조게에서 암약하든 불량조선인약 백명은사변 확대와동시에 공부국손으로 일본조게에 송치되어왓슴으로 지금까지조석을잇지 못하고잇든 그들은비로소일본의 감사한것을 알뿐아니라황군장병들의 당당한 위풍과 거류민들의 친절한 공궤에감격한눈물을 흘리고잇는 판이다

上半期山火損害 二十六萬圓巨額

총독부림정과(林政課)조사에의한 금년일월부터 륙월까지이르는상반기산림화재손해는 강원도에잇는 동경제대연습림(演習林)의대회재팔천륙백『헥터』십만오천칠백원이란 미증유의손해를필두로 전조선의총손해액은 이십륙만사천백구십륙원의 거액에달한다 소관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件數	損害面積	損害額
▲道所管	一五五件	一六、四七六(헥터)	一七二、三二七圓
▲營林署所管	一八三件	一七、八七五(헥터)	九一、八六九圓
▲合計	三三八件	三四、三五二(헥터)	二六四、一九六圓

電車取締違反犯

작란마시요!! 십팔일오후네시반경 부내안암정(安岩町)백번지의팔호 모교회서무주임 정재열(鄭在烈)(三七)씨는 동대문에서 청량리행 전차를타고잇다가 기동너도 떠나지안홈으로 차장대에서 신호줄을당기여 전차를떠나게하엿다 동대문서에서는 전차취체귀측위반으로 엄중처벌을하엿다

豊川支那人歸還

【豊川】 북지사변이 각일각으로 험악하여감을따라 풍천에 거주하는 지나인들도 당지경찰의절대보호아래잇는바 지난십오일까지 이십명이 귀환하엿다

一齊檢查택시 半數가違則
昨夜鍾路署管內에서

요사히 일반으로 물까가 벗싸짐을 따라시내 택시업자도 여러가지로 지출이갑작히 느러 경영상 일대수난기(受難期)를 격고잇는동시에 손님에게 메-타를 속히는일이 느러가고잇다 부내 종로서에서는 그취채를 철저히하기위하야 십구일저녁일곱시부터 여덜시까지 한시간동안 관내에서 가장교통이 번번한종로네거리 삼정목 광화문네거리에서 일제히메-타취체를하엿다 그결과에의하면 취체건수일백팔십오건가운데 위반자가 팔십사건으로 약반수라는 놀라운비률을 보이고잇스며 그대부분은영업수중을 발휘치안는것과 메-타를 일부러 못쓰게만든것이며 제일 엇질위반은 메-타를 경엽설비하지안혼것이 한건잇섯다 동서에서는 이결과가 매단년분매배추어 압흐로 취체를더욱엄중히하는동시에 일반이 안심하고 택시를리용하도록 힘쓰기를 업자에게 철저히경고하기로되엿다

掠奪結婚失敗劇
四名이作黨、處女를拉致한者들 懲役一年半式言渡

동성(同姓)간의 련에는조선고래의 량풍미속에 어그려진다하야 동리총각네명이 작당하야 처녀를빼서다가 서로자기의 안해를 삼으려고 밤중에처녀의집을 천입폭행하엿다는 평창군진부면룡전리(平昌郡珍富面龍田里)황하룡(黃河龍)(二)등네명에관한 결혼략취(結婚略取)사건 언도공판은 이십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미례 열리엿다

사건의내용인즉 전기룡전리에사는 최순옥(崔順玉)(二)이라는 어여쁜처녀가 지난 이월중부터 그동리 최순선(崔順善)이라는총각과 서로조와하야 결혼까지한다는말을들은 피고들은 다옮르는 질투심을 춤지못하야 동성간의 결혼은 조선고래의 량풍미속을 어그러치는것이라 방자하고 황하룡이 주모격으로 처녀를빼서다가 그의안해를 삼으려고 지난류월이십사일밤중에 처녀의집에 돌어가서 처녀를 등에둘처업고 도망한사건으로 재판장은 그들에게 일률적으로징역 일년륙월식을 언도하엿다

歲月맛난氷菓商과 嚴重한衛生取締
大量生産으로粗品多數

금년은 례년에 보지못하든더위가 오래동안 계속하야 여름장사들이 두둑히 한목보고잇다는것은 련일보도되는바로 그중에서도 가장고객의 수요를만히가진『아이스케익』장사들 중에는백계혹은 어떠게서 도매로사서 자전거 행상을하는 소매업자에게 팔기때문에 짧은시간에 대량생산을 하노라고 소독저의 불결한것을 그대로사용하며 또는다른기구의 소독도 불충분하야 적리병(赤痢病)환자가 속발하고잇다 이보고를 바든 본정서에서는 이십일부터 관내어름장사의 설비를더한층 엄중히내사하야 불결한곳은 발견되는대로 처분할방침이라고한다

畜犬專門으로 七十餘頭竊盜
撲殺後는屠殺者에賣渡

전후이년간 남의집개만을 전문으로 도적하여다가 때려죽인후 개백정에게 팔어먹은 일당의개도적이 룡산서에 잡혓다 본적을양주(楊州)에다가 두고 시내 체부정(體府町)일백이십이번지에사는 전과륙범 김룡석(金龍石)(三)과 아현정(阿峴町)이백구십륙번지사는무직 장기선(張基善)(三)대현정(大峴町)엄배이십삼번지 무직 리천만(李千萬)(三)등삼명은 공모하여 작년십일월부터금년팔월까지부내각처로 돌아다니며 남의집에기르는 개를 훔처다가 연희장(延禧莊)산속에서 때려죽인후 개백정에게 삼원내지 오원식에 팔아 분배하야 사복을 채웟다는데 그피해건수가 총수칠십두에 달한다는데 이십일오전 여덜시 룡산서원이 연희장순회중 전기 장기선이가 개를 타살하는것을 체포하엿는바 도공범이 개두마리를 훔처가지고오며 또조금엇다가다른동범이 또개를훔처가지고 오는것을 무난히 체포하엿다 개일흔사람은 누구나곳 룡산서로 차즈러오라한다

十指로꼽는대도이
두作品이넘버원!!
愛怨峽
네개의戀愛
곳上映됩니다 (廣告)
團成社

お待兼ねの 主婦之友 九月特大號 いよいよ發賣
詳細는夕刊六面을보아주십시요
廣告

스포-츠

惠化町에新築中인 朝拳竣工
明日부터練習開始

創立十週年을 마지한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同俱樂部의 創立者인 成義慶氏가 私財二千五萬圓을던저서 府內惠化町二〇番地에다가 大道場을 建設中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同道場은昨十九日까지에竣工되여 明二十一日부터 毎日午後五時에 新道場에서 部員一同이 猛練習을開始할터이라는바 此際에 大大的으로 新人部員을 增募할터이라하며『코-취』는 金容起氏와 伯林 올림픽出場選手 李奎煥君이 當分間擔當하기로 되엿다 한다 그러고 同俱樂部의 十週年記念式을 兼한落成式은 追後日字를 擇하기로되얏다한다

玄海男君出發

拳鬪의『메-카』米國遠征을떠나는 玄海男君은 그동안 萬般準備를마치고 今二十日午後三時橫濱出帆의 龍田丸으로出征할터이라는데 渡米後에는 羅府、桑港、헐리웃드、오-쿠랜드等地를 轉戰하며 世界페더-級의强豪 黑人『헨리-암스트롱』、『짹크·윌손』、『조니·차베더』等에게 挑戰할터이라한다

甲子園中等野球 中京商業優勝

大朝主催의 第二十三回全日本中等校優勝野球大會決勝…熊本工業(南九州代表)對中京商業(東海代表)戰은 二十日午後一時부터甲子園球場에서 熊本先攻으로 開始한바 熱戰끄테三A對一로 中京商業이 優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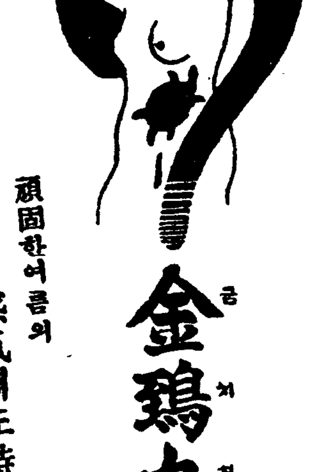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熊本工業	0	0	0	0	0	0	0	0	1	1
中京商業	0	2	0	0	0	1	0	0	A	3A

▲兩軍投捕＝(中京)野口－松井、(熊本)川上－吉原

天氣豫報

豫報 개엿다흐렷다하며 뎀엔소낙비가잇다 明日도개엿다흐렷다한다 全鮮同

昨日最高	三二度九
同 最低	二三度九
今朝最低	二三度七
今日正午	二八度

尤先! 三十錢자리를 試用하시라

瘧疾(학질)과鼈腹(자라배)은 金鷄丸(금계환)으로全快
頑固한여름의 ▽……感氣에도特効
定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旭町
有到處藥店

眼、鼻、顏面其他整形外科
죽은깨、여드름、사마구治療
【附設 淋病實費科】
鍾路二丁目七二 鷄林商會隣
淸華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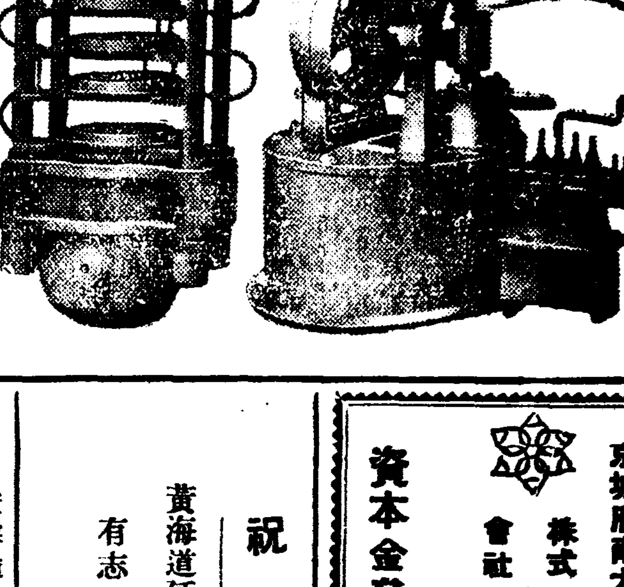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金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 局三六二番 振替金山一五三五番

第84回生徒募集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實踐簿記專修學院改稱)(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三六〇番)
京城高等簿記學院(期後)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本社 營業局直通 電本②六三八一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送하시면小資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其他日用品을누구나能히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贈呈(原料商)
京城府長沙町一九 泰昌工業所

精米業者의副業에最適
米糠油製油機製作販賣並設置工事請負

京城府西界町三二 京城鐵工所 電話龍山二三三一、六〇七
京城驛前 京城鐵工所營業部 電話本局九四一番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豊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府金庫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슴

祝延安邑制昇格
黃海道延安邑 有志 徐龍鎬 電話一三八番
黃海道延安邑 延安邑長 禹夏榮 電話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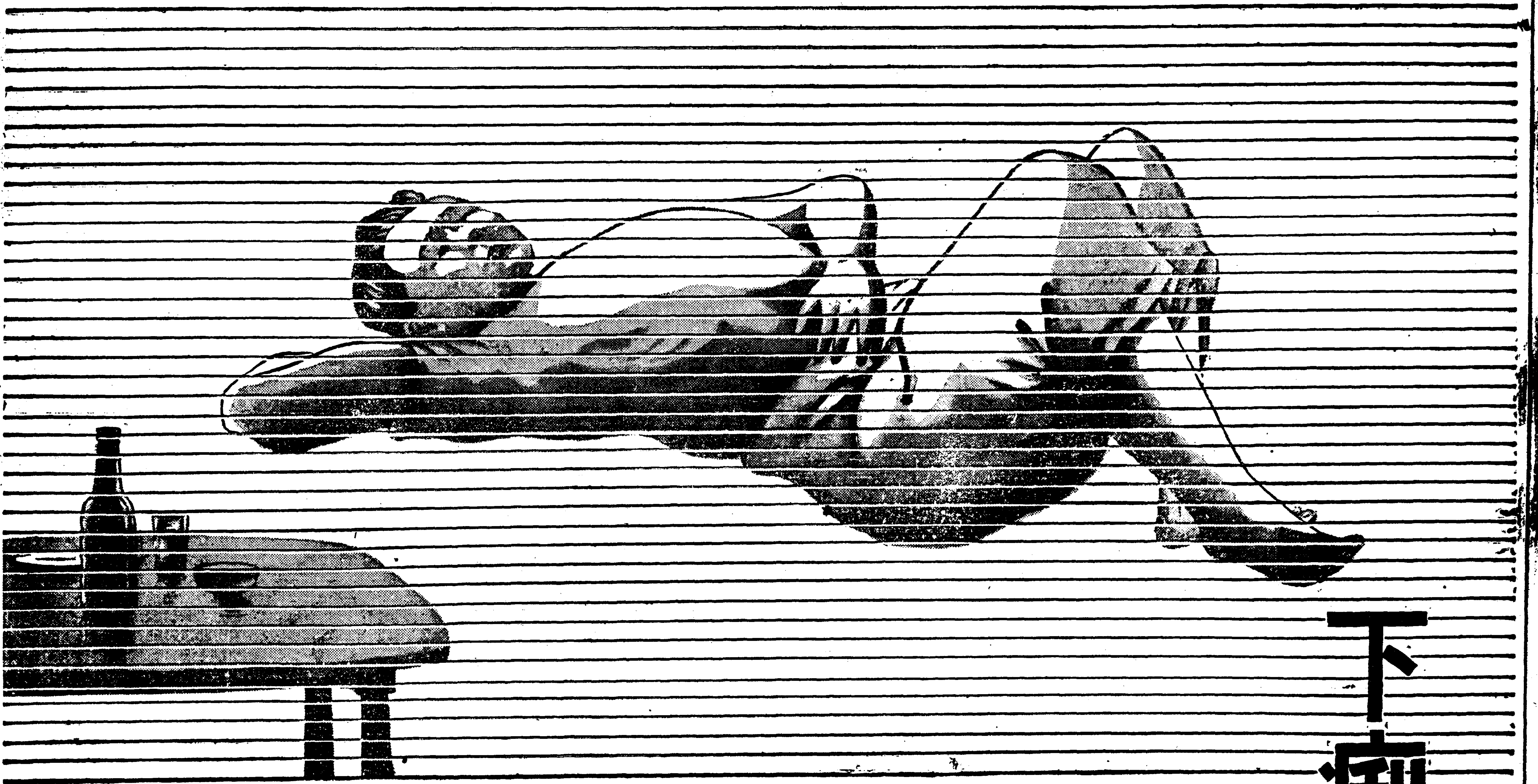
若き日の一頁 佐久間妙子 山縣隆主演
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敵前上陸 チヤールス・ビツクフオード主演
肥後の駒下駄 市川壽三郞 貴志洋子主演
(事變ニユース每日上映)
二十日ヨリ二十三日マデ四日公開 階下席十錢均一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永樂町 本三 一〇四
中央館

涼味萬斛!二大名畵週間 八月二十日부터納涼特別公開!
코럼비아超特作第級(一百萬弗大篇) 巨匠후랑크·카쁘라-氏監督
失はれ地平線
로날드·콜맨氏主演
P·C·L超特作全發聲! 原作脚色監督渡邊邦男
男は度胸
岡讓二氏主演 五條貴子 英百合子 堤眞佐子 助演
大傑作 高原の復讐鬼 第七號國際列車殺人嫌疑者 乞期待!
黃金町 電光二九五
優美館

八月十八日부터二十日까지 短期三日間 絶對無延期!!
劇團靑春座 北鮮巡演 告別公演
▲上演劇本
南宮春作『女人哀史』六幕八場
南宮春作『將棋狂受難時代』一幕
『아들도라오는날』一幕
李雲芳作『慈善家萬歲』二場
東洋劇場

◇八月二十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上映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 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戰鬪大活劇 벤갈의槍騎兵
巨匠헨리하사웨이氏監督作品
主演 게-리-쿠-파-氏 후란쵸트-돈氏 리차-드알렌氏
◇不朽의빛나는武人의精華版 마키노超特作全發聲日本版!
時代活劇 龍虎槍騎隊 後篇九卷
監督……廣瀨五郞 主演……大內弘
全發聲 漫畫 一卷
全發聲 大每뉴-스 三卷
京城新堂町 (電本) 五六七七番
新富座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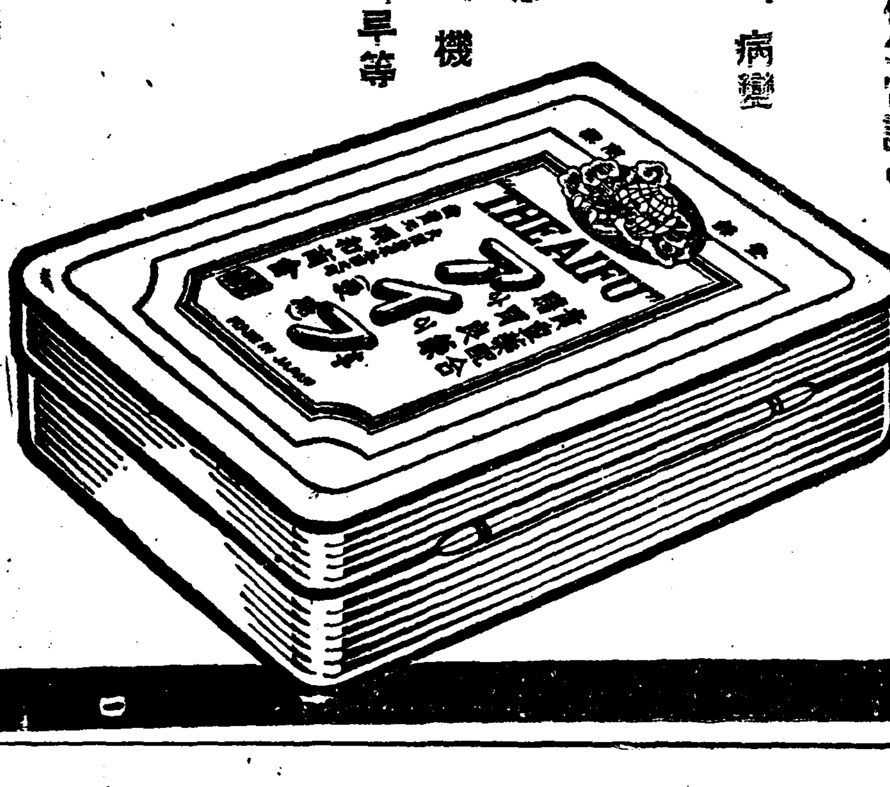
下痢腹痛의頻發이 암만해도 憂鬱해 慢性胃腸病이면 여름만은업지못할 治療藥 아이후!

胃腸의機能이 極度로 衰弱해지는 요지음은 健康한분도 無理를못하며 흔히 胃腸障害를 일으키기쉽습니다 마는 平素부터 그리 胃腸이 튼튼치못한분이나 慢性大腸가다루가잇는분等은 食慾不振으로 榮養이 衰退하야 눈에뜨이게 夏瘦를 하는故로 特히 이季節의攝生이 重要합니다

더웁다고해서 생각나는대로 어름과果實 삐―루 사이다― 아이스크림 等 함부로 冷한것을 드리키면 그야말로 갈데업시 泄瀉腹痛으로 苦生하며 一層痼疾을 惡化식히는것입니다 衰弱이더하면 抵抗力도 鈍해지는故로 赤痢와虎列剌 腸疾扶斯等의 傳染病에도 걸리기쉽고 조고마한不注意로 다시 도리킬수업는不幸을 보는例는 적지안습니다。

그런대 이러한 胃腸의非常時에는 于先 治療藥 아이후를服用해서 慢性的인 胃腸病의 治療에 努力하시는것이 第一이며暴飮暴食不消化物 腐敗한食物 過冷한飮食物 寢冷等 急性胃腸가다루 의誘因이되는 不攝生도勿論 삼가지안으면안됩니다 又 可令 急性胃腸가다루에 걸엿드래도 當慌하지말고 治療하도록 治療藥아이후만은 常備하서서 惡疫의侵入을 未然에 防止하는것이 夏節衛生常識이안이겟습닛가。

治療藥 아이후에는 病原 對症二重의 作用이잇고 主藥이 胃腸內壁의 病變部에 沈着해서 炎症을곳치고 粘膜을强케하야 弛緩을緊縮하야 分泌와蠕動異常을 整調함과 同時에 腸管內의 有毒物質을 吸着해서 體外에排泄하는等 廣汎한病治療를 營爲하고 倂하야 가슴아리 噯氣 惡心 胃痛 腹痛 下痢 嘔吐 消化不良 食慾不振等의 諸症狀도 消退해서 機能의 恢復을 速하게함으로 慢性胃腸病은 勿論 夏節의 急性胃腸가다루等에도 다시업는 治療藥입니다。



001650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症에는特製아이후
便秘症에는加減아이후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우리차지

호랑이의마음뽀

호랑이가 소고기를 먹다가 뼈다구가 목에걸려 꿍꿍거리는것을 보고 까치가 호랑이입으로 드러가서 그뼈다구를 빼냇습니다。

그런데두 호랑이는 그 고마운 까치가 입으로 드러 왓슬때 꿀걱못생킨것을 후회햇습니다。

(글·그림 하구용)

家庭

방학동안에생긴 아동의납분버릇

지금곳교정식히십시요

질거웁던 여름방학도 다되엿습니다。숙제라던지 학습장의정리는말할것도업고 병이낫다던지 닷친데가잇섯드라도 그동안봉흔한치료를할수잇습니까 그리하야 아모고장업시 상학에대여갈수잇습니까 여기대하야 부모되시는 분들의 주의할것은 학습장과어린이의건강은 더말할것도업고 그밧게한가지중요한것이 잇습니다 그것은 여름방학동안에 어린이의생활에 무슨변화나 업는가하는것을 살펴보아야겟습니다。

가령 게을너지지나안햇스며 군것질, 밤에놀너단이는것, 공부하기실혀하는것등의 납분버릇이 들지안햇습니까 어박게도 아침에 늣게일어나는것등의 적우간 방학전과달너진 무엇이 업습니까 이것을 그냥두면 그것이정말습관으로변하야 나종에는 곳치기 힘들게되는것입니다 생활이 불규칙하게되는것은 대부분이 부모의잘못이라고 하지안흘수업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모리주의하려라도 학교처럼 규칙잇는 주의를하기어렵습니다。

그러고 또 여름방학동안이나마 제마음대로 뛰놀게하자는어머니의애정이 그원인이되는것입니다 어러케한번버릇이잘못들면 이것을 될수잇는대로 속히곳처주도록 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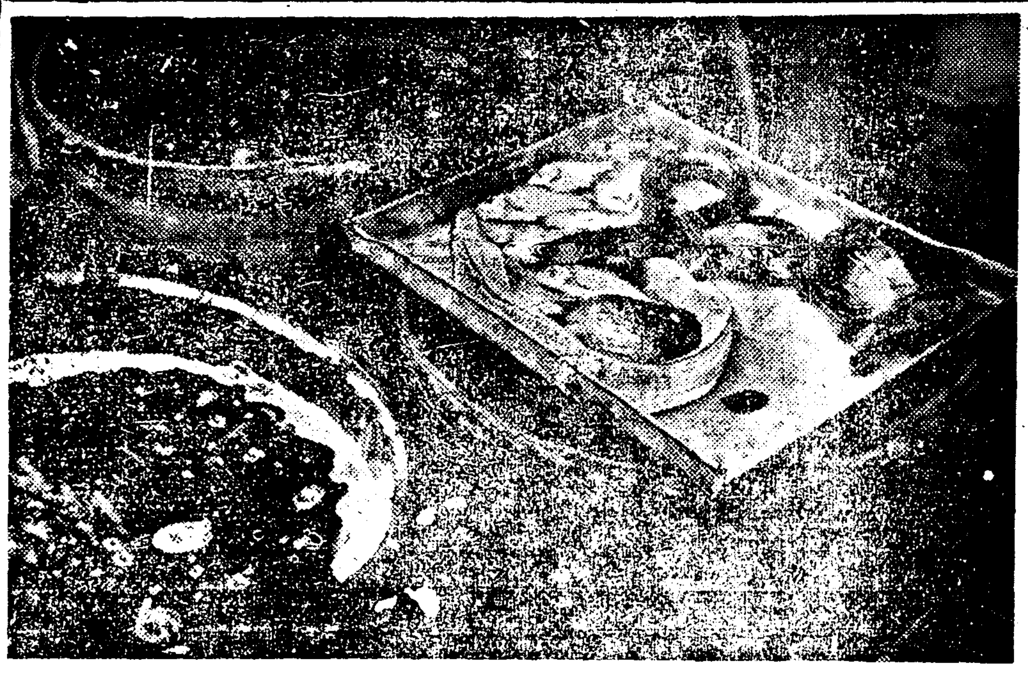
납분버릇 곳치는방법을 들면 ▲게으름=여름방학의 납분버릇이라하면 게으다 이게름이리고할수잇습니다。

간단한숙제를 그냥열흘이고스무날을돌보지안타가 나종에는형이나 누이의 힘을빌어서 채워넛는 병법을얼고 그다음부터는 그저먹고자고 뛰놀고 책읽보는 낭하면서 납분 그림책이나잡지가튼것만 읽고잇습니다 어려한번버릇이 한번 되기만하면 어한기섯적에 담박영향이됩니다

방학다음 상학을시작하면 웬일인지 모다긴장하는비치보이지안코 그저느리여진다고 선생님들이말하고잇스나 어것은생활이갑작히변해버린관게도잇스나 대개는 게으른버릇이엇서서 공부할생각이 적은까닭입니다。

여기붓처서는데는 방학마즈막열수일동안에 시간표를 정해주는것이 조흡니다 그것도 처음잇틀동안은 공부시간을 삼십분식하야 오전오후의 두회로 갈너서 부모나 형님되는분이 여페안저서 감독하도록해야 합니다。그리하야 그다음날은사십분 그다음은오십분으로 차차시간을 느리여나가고 한편으로밤에는 일죽이자고 아침에는일죽이러나도록하야 생활을 긴장시겨주는것이 조흡니다 이것은갑작히 강제로하면드르여 조치못한결과를 가저오기쉬우니 차츰차츰해나가도록 해야합니다

군것질=아이스케익 가튼것은 여름방학동안에 도회의 어린이들에게 친해진것입니다。이것은 날이더우니 어머니의약한자정에끌여서 사먹이기시작한것이 그만습관으로되여 버리엿습니다 그저날마다 한입두식돈을줄너내여다가 이것을사먹는것이 한가지낙으로 되여잇습니다 그러나불결한길가에서 파는 이런음식은 어린이에게 해로올뿐안이라 어린이의정신에도 조치못한영향을 가저옵니다 이러한것을갑작히끈코 그냥두는것이 안니라 그보다더맛나는 음식을 작만하야 당분간 그버릇이업서질때까지 집에서 군것질을식히도록 하십시요。



식욕과가을바람 세나는 밍물고기

더위가 차차물러가면 음식도 여름보다 잘먹히고 여름동안에 몸이약해진것도 회복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반찬가음으로 옷들가는 밍물생선은 어떠케되엿나 하고 시세를보기로 햇습니다。무엇이어떠니하야도 밍수라지국어한창인모양인데 아조크다란놈들에 얼마던지 너허든밍수라지가 나는듯팔려고 잇섯습니다。갓은 한편에 굵은것이 사원이며 잔놈은 열원오십전부터라고합니다 그러나 실상알고보면 밍수라지는 굵은놈이 조흔것이 아니라 잔놈이 조흔것입니다 그러니 여려분도 추탕을끄려지시것다면 시장에서 굵고조다는것을 사시거보담 잔놈을엄한 갑스로 사다쓰는것이 조흡니다

그다음에 구어먹기조키는 가물치인데 밍물생선으로는 모다 한목식처주는 고기입니다。이것은 한관에오원이나 주어야 살것갓습니다。제일비싼놈은 자라입니다 이것은 약으로나 쓰지 어듸반찬으로야 손이나 대여보겟다고요。한관에 십륙원이란놀납게비싼갑입니다。

약약하고 자미잇는 뱀장어도요 사히반찬으로는 조흔것입니다。뱀장어는 놈기가만흔 고기이니 아즉은 조금철이 이른것갓기도합니다 조금가을이 더기펴지거든 먹는것도 조치요 왜그러냐하면 더위에 상한위장이갓득이나 소화가 잘되지안허서탈어나기쉬운데 어다지 기름기가만흔것은 그다지 조흔것이 못됩니다。어것은 한관에 유원입니다。그다음에는 붕어가 한관에 오원오십전인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밍물생선은 모다 황해도 연안에서 오다고합니다 그가운데 자라만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고요。

점심요기로는 간단한"쌘드위취" 위생적이오또갓든합니다

점심으로는 간단한 쌘드위치를 맨들어 자시는것이 조흡니다 그 쌘드위치도고기만넣너허 맨드는 것보담은 야채가튼것을 넛는것이 더 영양에도조코 보기에도 조흡니다。

푸렌치쌘드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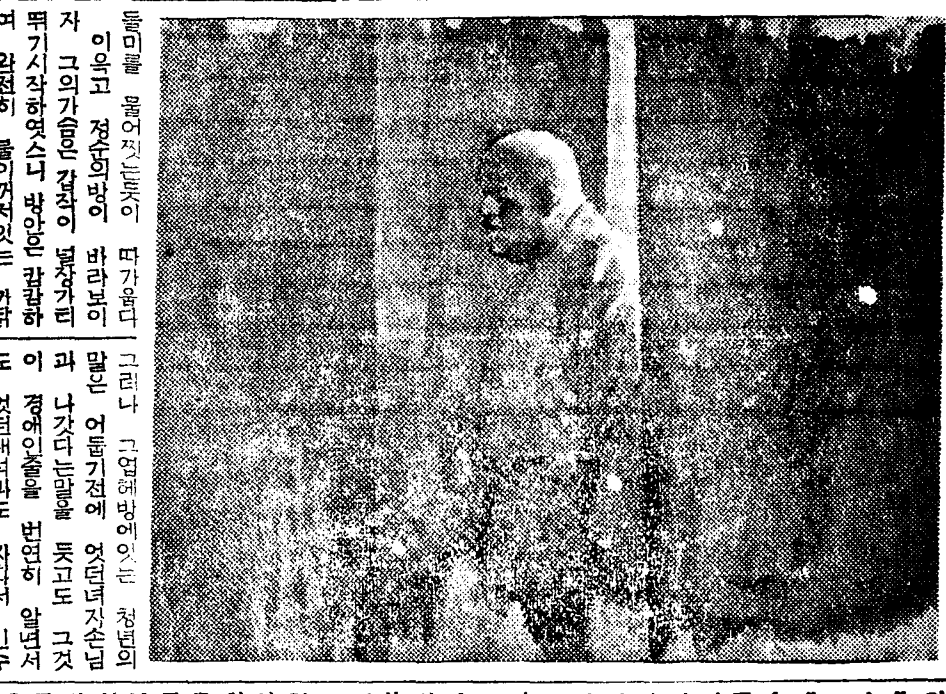
재료 면보 오이 양배추 일년감 소금 초 호초 계란한개 개자조금

맨드는법 위선 어린오이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저미어내고 양배추를 잘게썰어 잠간 끌른 물에 데치어서는 체가튼데 담아노코 일년감은 끌른물에 담것다가 끄내서 씻와 물끌을알마치 썰어 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양배추와 엷게 물끌은 부분을 도려 낸뒤 고 계란은 삶아서 다시 대키어 가로 빠회지럼 도렵니다。그다음 사라다 거름에 초와 호초와 소금을올라서 맛을 마치어서는 체가튼데 담어서 물기를 빼은 오이와 일년감과 양배추를 너코버무리지안습니까? 또그다음면보를얇게 썰어서 그한편짝에만 빠터를 칠하고 계자를조금 바르고 그것을 다시모개는동시에 그사이사이에 맨들어 노흔재료를 세우지안습니까?

잡탕쌘드위치

재료 면보、계란두개、누려논쇠고기조금、홍당무、오이

맨드는법 홍당무를짧게썰어서 잠깐데치고 계란을 삶고 오이는 역시껍질을벗기어 얇게저미어내고 누려논 쇠고기에는 사탕、소금 호초를 칠하야맛을 마춥니다。그리고는 이번 계란을 누른자는 짓부시고 흰자는 잘게썰고 오이와 홍당무는 소금물에 저리어 내서 꼭 짭니다。그다음 면보의 한편짝에는 빠터를 바르고다른 한편짝에는 게란 누른자를 바른뒤 그것을 포개어노코 사이사이 오이、홍당무、흰자를 끼는동시 누려논 쇠고기를 알맛게썰어서 함께 세워놋습니다。



長篇小說

찔레꼿 【105】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영혼의시장(十六)

조두쥐가 처음에서 두번재 복도로나오는 오전 두시십분이엿다 그는 되도록 소리가 나지안토록 슬립퍼도 버서버리고 살금살금 정순의방을 향하고 발을떼 노핫스나 그의옹중한 물흔일은두다리가 옴겨질때마다 마루바닥에는 삐드득하고 불쾌한음향이 울리는 것이다

두쥐는 누가 보는사람은 업나하고 그뒤다란눈으로 연해 사방을휘도라보며 한거름식 한거름식거름을 계속하엿다

눈이내리지 하날에는 별한개 보이지안코 엇더금 불어오는 삭풍이 처의만입은 조두쥐의 목들미를 물어짓는듯이 따가웁다 이윽고 정순의방이 바라보이자 그의가슴은 갑작이 벌장거리뛰기시작하엿스니 방안은 감감하여 완전히 불이꺼저잇는 까닭이다。

두쥐는 되도록 호흡을누추면서 방갓가히갓다 그는 문박게서서 두어번 심호흡을 하면서도 누가보지안나하고 압뒤를또한번살피고는 살며시 문을열엇다 과연 방에는 어엽분정순이가 양과가티 아무런 저항도업다。

『안선생님!요、용서하십시요』하고 첫말을건니는 조두쥐의음성은 지극히떨려나왓다

어른날아침맛치고 효자정자기집에서 도라온 정순은 지난발동안에 자기방에서 어떤 무서운일이 지나갓는지도 알지못한체 그는 호주거니 풀이죽어 책상에 도라안저 두눈으로 업꿈맛다。

그는 경구에게서 사랑의고백을 드른뒤부터는 불로지지듯이 민수가 그리웟다 그는 아모리생각하여도 민수업시 엄운잇 초라도 살아갈수는 업는일이다 민수와떠난다? 그것은 생각할수도업시 무서운 사실인것이다 정순은 맛치내 결심을하엿다 앗떤일이 잇더래도 민수는 자기와 결혼하여야될일 만약 민수가 자기를버린다면 자기는 한평생 처녀로 늙으리라는 선언(宣言)을 입속으로 외이면서 벌서어두워오는 외로웁시반 효자정 민수의 하숙으로 차저갓든것이다。

그러나 그엽헤방에잇는 청년의 말은 어둡기전에 엇던녀자손님과 나갓다는말을 듯고도 그것이 경애인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엇던대적과도 싸화서 민수를 빼앗고야 말리라고 결심한 정순은 민수의방마루턱에 걸처안젓다

『추우신데 안으로드러가시조』하고 근호가 여러번 권하엿스나 검정명주두루막이에 두손을넛코 노-르스럼한 마푸라속에 얼골을 파뭇은채 정순은생각에 잠기고잇는것이다

여듧시가지나고아홉시가넘엇다 가 인제는 완전히 감각을일흘만침되자 그는 자리에서 겨우몸을이러켜 이리저리 마당으로거닐어보앗다 초밀해달이 집웅으로 수심을뛴채 소리업시 너머가고 하날은차츰 무거웁게 흐러젓다

정순은 가슴하고 슬슬하고 그리고 초조한을 견델수업서 예여나 민수가 지금쯤 도라올가 옷을 내다보려고 그는대문간으로 두어거름 밧겻을 흘깃할때 대문밧게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오다

지상의행복을 독차지한 경애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려왓다 그리고 가장 정순이 귀에 쓰라리게 들린것은 대문앞에서 민수와 경애는 드러섯다

한팔을 경애에게 안긴채 자고 듯번두번 걸어드러오는민수는 경애가 무어라고 소군거리자 그는 웃둑 그자리에서서 경애를도라보다

『정말로 정순이가 당신의누의동생이거든… 내게 키스해주서요』

정순은 대문틈으로 경애가 깟닥거드는 아래입술을 재긋이 깨물엇다

『키스?』

민수가 잡가망서릴동안 정순의눈에서는 셋-파란 불줄기가 솟아저나왓다 그러나 천천히 민수의두손이 경애의얼굴을 싸고 그리고 그의보기조혼입술이 경애의니마에 대이는순간 정순은 손바닥으로 두눈을 덥허버렷다

두사람이 잠자코 안으로드러간뒤 정순은 파들파들떨리는 다리로 도망하듯 대문밧그로 뛰어나오고말엇다

정순은그길로 어머니에게 갓든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조단호씨집에서 나와야되겟다는말을 하엿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정순이가 보내주는 사십오원으로 아버지의병비와 어린아들과 어머니가 살아간다는말을 드를때 더욱이 지금은 가난한사람들이 제일무서워하는 겨울이라는 절기가닥처오것을 생각할때 정순은 눈압히 캄캄하여젓다

첨에 민수에게 삼십원을 보낸든것을 몃날뒤에 참다랏케 도루도라오뒤 정순은 만수에게는 한번도 돈을보내지는 안엇다 오십원 월급에서 잡비오원을 제하고는 고시라니 어머니에게로 보내드리는것이나 사실 그 돈사십오원은 세식구의 생명줄이 아니고무엇이냐

조롱과 저주、[illegible] 당장에 뛰어나와버릴[illegible]에 팔려오든 아지처럼 오십[illegible]에 목이매여선 혈이흘리는 심장을 부디여안은채 하로하로를참고 잇지안으면 안되다니!

그러나 새벽도갓가워 어제밤에집혓든이불도 식어지고 옷욕에 새우처럼 옹송거리고 누어슨 어머니를볼때 그리고 동생의 새카맛케 때가낀 손목을볼때 그는 버개우여업대여 호덕여울엇다

『어머니 어머니 가난한저에게는 감정의자유도 업습니다』

말속으로 부르짓고

『입의 내심장이 찌저진이상 금부터 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의 생활을위하여 어몸을밧치오리다 어머니 아아』

정순은 속으로울는우룸이 어늬듯 호덕호덕느기여젓다

『얘얘 정순아 무슨잠고대냐』

겻헤누엇든 어머니가 정순을흔들어깨운다 정순은 흔근한눈물을 손바닥으로씨스며

『어머니 꿈에아버지께서 도라가섯겟조』

하고 맘에업는 거즛말을 꾸며댓다

그는 지금 책상에 얼호린채어제하로밤에 지난일들이 환등처럼 하나식하나식눈압해 나타나고 나타낫단 사라젓다 그는달려 취직자리가 나서기전에는 당분 졔로운대로 어집에 머물러잇서야만 될일이 슬펏다

똑똑 녹크하는 소리가나터니

『안선생님!』

하고 굵다란 남자의 음성이문밧게서 들려왓다

第2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十圓

百圓 特別褒賞(朝鮮日報社長賞)

▲入選作品中에서 左記二級의入賞作品을決定하야 正賞으로賞狀을授與하는外에 또 所定의副賞이잇슴

百圓 各部各科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認하는作品一點에對해서 本社社長이 授與함

▲會期 自九月十七日至廿六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申請及搬入—場所는 本社事業部期日은 自九月十日 至十日間搬入할일

出品規定—本社所定의申請書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과함께前記搬入場所로提出할것이며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明記할일 (規定에違反된것은不受理)

◇主催 朝鮮日報社

부인위생

자궁병으로하야 애기를못배는 원인과치료법

평소에는 건강하던 부인이라도 다 그 시부모와 남편시중에골몰하시면 신체가 점점허약해 진는고로 부인에게 대통으로부인병과 자궁병이 발생하야 대하증이 흘으게되면 애기를못나게되므로 시집사리에 재미를몰으고 부부간정리조차 엷버저서불화하게됩니다……

여러분가운데 나는 엇재서애기를 못낫는가 하는말삼을종종 회한가정의 주부들이 되시여 시부와 남편시중에 골몰하시는 젊은부인들의 애달분하소연이며 설움과 한대를 한몸에 등지시고 말삼하시는눈물겨운고항일것입니다 참으로세상에는 귀여운보배와 귀여운물건이 만흐나 방긋거리고 재롱부리는 아해들의 어리광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더욱탐스러우며 귀여울것이니 그의부모님은 하로밧비의 모든쓰라림과고통을 재롱부리는 천사와가튼아해들로하야금 모도 이저버리게되며 내일의 히망을새로이찻게 갓게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에넘치던 가정도 귀여운아드님따님을낫치못하면 드디여쓸쓸한 가정생활을보내게되며 쓰라린세월을보내시는분이 얼마나 만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은자기의팔자나 전세의인연이라고 신세한탄을하시는모양인데 근래와가티발달된때에부인병을근치못할까닭이업습니다 거서부인병으로하야 결혼후에 三년、五년이 지나도록애기를 배지못하는 부인이잇스면 모든 완고의 폐풍을 거더치고 여러가지 신용업는 약광고에 속지말고 부부협력하야 동경에 잇는『명지모』와『오기나구』를 쓰시고 근치하야귀여운애기를 나으시기 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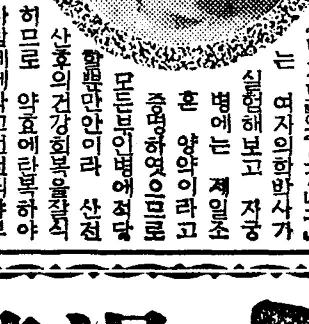
자궁병은—두가지약이 안이면완전히 낫지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이잘 먹히지안코 억지로 좀 먹으면 소화가 잘되지안코원기가 업서지므로 몸전신이 노곤하야지며 수족이냉하고두통이나며 아래배가 쑤시고 압푸고 가슴이 답답하야질뿐만안이라 월경이 불순하야지고 몸서리칠만큼 악취가심한 대하증이흘으는것은 두말할것업시 자궁병이 잠복되즁거입니다。어와가튼 병세가잇스면

【애】기를 배지못하는것이니 애기를 배지못하게하는 자궁병은 한가지약 만으로는 완전히 낫지안흠으로 내복약과 외용약 두가지를 쓰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동안 약광고에 속고서 외용약한가지만을 써보신분은 잘아시겟지만 아무리조타는 외용약이라도 깁히깁히잠복된 자궁병이 재발할염려업시 완전히낫지안흘것이니 모든자궁병、부인병으로하야 애기를 배지못하는부인은 하로밧비 부인의자궁병에 특효가잇다고 신용을밧는 내복약『명지모』를 복용하시면

【열】끌에화색이도닷고 주름살이펴지고 아름다워지며손발이 더워지고 체내에 잠복되엿든병독을 전부 죽여버리고 원기를회복식혀주므로 자연히애기를 배게되는것입니다 또한 외용약『오기나구』를 사용하시면 음부와자궁속에 잠복되엿든병독을 죽여버리므로청결하게되여서 불순하던월경이순조롭게되며 대하증(냉증)이 근치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것저것 여러가지약을 써보아도 병은 낫지안코 점점 더하야 오래동안고생을받는분은 하로밧비 자궁병에 제일조타고 신용을밧는『명지모』와『오기나구』두가지약을 쓰시면 모든자궁병이 근치되야애기를 배게됨것입니다



『명지모』와『오기나구』는 여자의학박사가 실험해보고 자궁병에는 제일조흔 양약이라고 증명하엿으므로 모든부인병에적당할뿐만안이라 산전산후의건강회복을잡식하므로 약효에탄복하야 한사람두사람에게소개되야 부인병대하증자궁병을『명지모』와『오기나구』로근치하고애기를못낫든부인들게서귀여운애기를출산하신분이허다함은 전패자가증명하오니여러분가운데자궁병으로고통하는부인이잇스면하로밧비이약을쓰시고 전패하시기바라오며

이신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려서東京市京橋區入舟町 笹岡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 조선말로알기쉽게자세히쓴『부인병자택치료서』와 여러가지설명서를 누구에게든지 거저드리오니 약을주문하지안는 분이라도 하로밧비 청구하시기 바라오며 본포에서는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 송료를전부부담해드리오며 본포에는 여러분의체질과병세에적맛는 가감약이잇스니 본포로 직접주문하고자하는분은 병세만자세히적어보내시면 병세에적맛는약을대금인환으로 보내드립니다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六日分	一圓	入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二十七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 命之母本舖 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少年九月號

漫畵特輯號!

十部以上團體注文 二割引提供·少年販賣所 全國的大募集

放學도다가고 그러나「少年」9月號 한권만 가지면 放學보다도 더 즐겁게 지낼수가잇습니다

어달의主要內容

·시초어야기……金哲洙
·세소년독본……李克魯
·건강과햇빗……鄭潤鎔
·이상한姓들……崔鉉培
·짐승의양식……編輯室
·새동요곡보……尹克榮

奇岩怪石大畵報● 사람가튼바위 거북가튼바위 코끼리가튼바위 별별이상야릇한바위가 다 잇습니다

童話 白虎 洪一吾 金奎澤畵

★李克魯 ★桂貞植 ★金復鎭 ★宋影 ★李箕永 ★任貞爀 ★具本雄

벙글벙글漫畵大會
□밤따기……鄭青羽
□探偵少年……朴仁樹
□自業自得……鄭青羽
□바두거짝……林炳天
□베러강……趙春植
□카라멜……金湘旭
□비행기새낭……高一天
□욕설쟁이……馬聲

□깔깔少年會 □曲馬團畵報
□讀者談話室 □少年娛樂室
□讀者寫眞帖 □척척問答室

-우리들의노래-
■벼 행 기(童謠)……金永一
■도야지(童謠)……朴桂順
■잠자리(童謠)……朴泳鍾
■감감한밤(童謠)……文聖植

코찡찡이 連載漫畵 올림픽연습 鄭青羽畵

歷史 혹부리장군……相瓚
小說 봉뚝섬……金福鎭
童話 웅철의모험……朱耀燮

探偵冒險 長篇小說 白假面 金來成作
뚝가치 나타난 두사람의유물란! 어느게 진짜 유물란? 白假面이오겟다는 열두시는 닥아든다。……

■愛讀者募集競爭當選者發表■

定價十錢 送料一錢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八八七五

山房窟寺의 遺蹟
—岩窟의 女神山房德의 奇聞—
⑮ 李殷相

大靜古縣을 지난지 얼마아니하야 바르면 바다쪽으로 鐵恩한 山하나를 만나니 이것이 저有名한 山房山이다 어 山房山에는 이러한 傳說의 記錄이잇다.

옛날 어떤이가 漢拏山絶頂에서 사슴을쏘다가 잘못하야 弓端로 하느님 배를 건드렷더니 하느님이 大怒하셔서 漢拏山絶頂을 뽑아버리매 그 뽑히어진곳이 곳白鹿潭이오 그 絶頂은 이곳으로 옮겨다노하 이 山房山이된것이다(耽羅誌小乘引用)

金淸臨이 그의南槎錄에 「今觀數百山麓、至此三十里間、怪石側亂、宛然有轉山之狀 好事者爲此說而傳會之也」라고 하엿거니와 이山房山近處가別로 怪石螺殼의 地帶임은 分明하다。

峭奇한 山容과 磊落한 石勢가 滄浪과아울려 景으로만도 이만저만한것이 아닌후에 玆爲特殊한 傳說까지 어덧슴은 지나는이의 興味를 한결더일으키는것이라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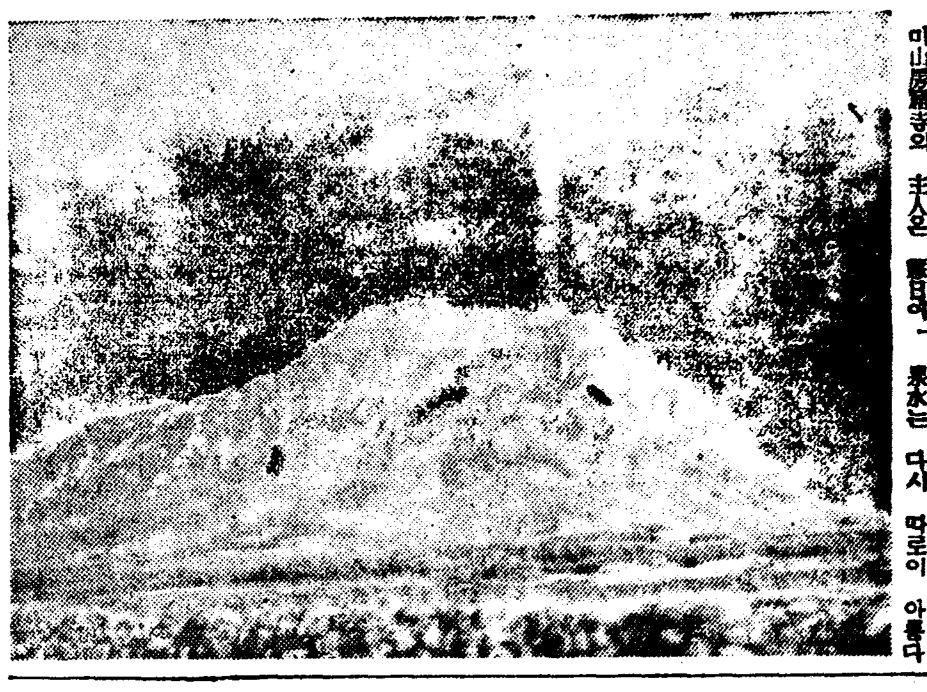
사람이라면 모르려니와 하느님속치곤 좀기도하이 배를어찌다 건드렷기로 설마설없어야 잇슬라구 아마도 하느님첫친이를 잘못알고 전한게로다。

그러치 그럴것이다。까닭업시 건방지고 너덜거리는 富者집 첫친이모양으로 하느님심통흠군이나 한일일것이다。

그야 하느님이 하신일이건 청직이가 한일이건 漢拏山柱峰을 뽑은일이야말로 不幸中多幸으로 漢拏山絶頂의景은 毋論이오、여기 이山房山이란勝觀이 하나더생긴것이 어떠케나 고마운일이냐。

그리고이山房山 南岸에 큰石窟이잇다。

數十尺노피에 百餘人이들어설만한 넓이러 幽邃靜寂한 境을 즐기는 佛家의人이 이러한것을 그대로 둘理가 업슬것은 定한理致려니와 古老의 十景選擇에 『山房窟寺』라것이 잇슴을보면 이石窟이 前에修道의 靈場노릇을 하엿든것은 明確한일이다。



濟州島의 傳說로는 麗末의 惠日이란이가 가장 이름난어니와 그의行狀에 山房法師 이라한것이 잇슴을보건대 아마山房窟寺의 主人은 惠日이련모양이다。

지금은 人跡의 開拓部分은 도로업서지고 自然의石窟만이 남어잇스며 그속에 淸冽한一條 泉水는 다시 따로이 아룽다운傳說의 表現식을 지어고잇다。

옛날「山房德」이란 美女가 잇섯는데 그야말로 나이는 二八靑春 얼골은 絶代佳人、才質과 爲人이 참으로 人間이 아닌 仙女이엇다。그는果然 山房山으로부터 나서 자라난사람은 아니엇는데 그런 무슨까닭으로 山房의 女神이엇다。

旣往 무슨까닭으로 나왓든지 人間界로나온以上에는 異性이 그립지 안흘수업서 高升이라는 佳郞을맛고 살게되엇다。그러나 好事多魔로 거기 무서운毒手가 나타나게 되엇스니、그때 이곳의 州官으로 잇던者가 山房德의 美貌를 듯고는 내것만들고야말것다는 野慾을 어르켯다。그리하야 高升에게 罪名을 뒤씨우고 家財를 沒收하는한편 그花容의 女神을 빼으려하매 山房德은 人間界에 나왓던것을 恨嘆하면서 다시山房山窟속으로들어가 化石이되엇는데 지금의 洞泉이 그遺蹟이라는 것이다。(耽羅誌山房奇聞)

어엿븐 山房德이 窟속에들어 바위되고
남그려 솟는눈물 바위틈에 샘이되어
밤나제 울고우나니 相思泉이라 부를꺼나。

(사진은 山房山)

學藝

思想・生活에對한自省
② 李軒求

얼마전 西歐文化를 보고온日本內地의어떤文藝思想家의 말가운데 『사람의 急所를찔느는것처럼困難한일이업다 우리들(그의所屬國名을가르치며)의 論爭이란結局이런程度의悲觀的狀態다』라는意味의말을햇다 事實우리가評論이거나

理論이거나가모다 第三者의急所를찔느는바 그程度에끈치지안엇든가? 엇더우리가 우리로서의 歷史的 또는傳統的缺陷과弱點 또는 相對便의人格的缺陷과 弱點만을 指彈함에서 自足하야 우리文化는精神的發展이躍進으로 向하야 進步하라는努力과意圖를 等閑視하거나 抛棄하지안엇든가? 그러나 그와反對로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急所와 弱點에 對하야隱蔽하거나 沈默하거나 寬大하지안엇든가? 만일이두가지의 그아모것도 아니엿다면 우리의存在란 또우리의 意識이란 實로 盲目的 時間的 持續以外에 아모것도아니다。

假令 여기어떤思想的 反動行爲가 잇섯다고하자 그것이그社會에對하야 影響을 끼치는바結果를 充分히觀察한다고 하더래도 그하나의 事實에對해서 公公然히 그正體를 認識하고批判하는바

自由가許與되지안엇다는것만에 끈친다면 우리에게는 오직外部의 事實이나 行爲에 對하야 沈默으로서 이를傍觀又는 默認、容許하는바 消極的 態度만이 잇는 것이다。이러한 雰圍氣를 가르처 蟲天下라고 指摘하는이가 잇고 極度의 虛無的想念에 사로잡히는바 한空間밧게업다고 失望하기도한다 그리하야 어떠한急所에對해서 우리는그를追求할바 自由도업고 따라서 이自由를가지지못함과가티 딱하고도困難한일이업슴을느낀다 여기에서 우리는오늘의急迫한 現實을보다 그러나周圍를 이러한全體的인 念願過程에만 끄을어가지아니하고

우리가思惟하고 感受하고 可能할수잇는바 모든文化的諸事實에對한 우리의行爲 意圖는 어떠케表現되고잇는가? 모도들 一般論 大局性에만 迎附하는바屈從的待機論에서 한거름 떠나 現實的인 生活、思想、이에對하야 우리가取하고잇는바至極한 不感性과 遲鈍性은 果然그마저默認하고 거기에까지 寬大하여야할것인가?

不安이라거나 懷疑라거나또는 閉鎖된속에가친感情 委縮된思想이 것을한결가티 反復함에서도 우리는조금도 우리의 自身을救할수업는것이요 思想의貧困 知性의貧困 生活의貧窮을아모리 詠歎하여도 우리의 思想이나 知性이나 生活이 今時로豐富해질理萬無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現實이니어떠케하느냐? 이러케하면 問題는 언제나周圍대로 녹이쓸고 곰팡이쓸고하는以外에 아모것도 업다 이러한 反動으로 그어떤積極性을主唱하며 探索하는바努力이잇스니 여기에 一面朝鮮的인表現 朝鮮的인性格 朝鮮的인感情을뒤집어내는事實에 이르게하는것이요 또는『一切를殘忍하게 無慈悲하게 告發하는精神』 모든것을갓까지追及하고 그곳에서發露되는가지각색의 生活을뿌리처파서 펼처보일려는 情熱(金南天氏의 告發의精神과 作家 中의 一節)이 提起되기도한다

白鐵氏와가티 提起한問題가朝鮮的性格을 찾는바皮相的時事的 (이말은氏의그만흔 擁辯에도不拘하고 日本內地의影響이란意味에서)事實을 多分이띠여서이에關聯되는 氏의數個의 論文에對해선 적지아니한 反駁이不活潑하게나마 提示되여왓다 實로 筆者도 이小論의 周圍에잇서서 우리가 모든文化의 享受繼承이 그어느것이나 朝鮮的인 文化傳統을남겨노치 못한것을 指摘햇거니와 오늘과가티

急迫한現實에서 우리自體의正當한認識과反省의 急이잇다면 筆者는 다음과가튼 한가지의事實을 注意깁게 關心할必要를느낀다 即 林房雄等이 文藝懇話會를 『新日本文化會』로 改組하면서 發表한所論에對하야 三木淸氏는 오늘의 日本은 政治的 意味만을 떠난다면 日本은 日本的인 文化로 退嬰拘束될것이 아니요 터욱이 더크게世界的이요 西歐的이되어야한다고 反駁한것이엇다 이두가지의 事實에서 우리는 우리가 多少라도 文化에關與하라하며 그에留意하는者로서 우리의할수잇는대까지 우리의文化로하여금 暢達식히는바 努力이 文化의 各部門에잇서서 더크게 더힘잇게 이世界的이요 西歐的 人文化의攝養으로 領域되어야하며 藝術그自體亦是 이에對한正常的이요 繼續的인 膨脹되는바 努力이잇서야할것임을 또여기서 反復하야말한다

漢詩
題芳草 押生 佳作
北靑郡居山面師里 李龍巖

保得深菱耐雪經
春來無處不敷榮
煙況轍跡依依合
雨灑燒痕苒苒生
憶弟西堂猶有夢
送人南浦亦傷情
詩家賴有勝花句
更寫迷懷登夏城

鍊金術
長篇의테마
蘭蛇

舊小說의 사연이란 어느것이나 千篇一律로 맨처음 賢哲한 內外가 잇서서 英特한 아들을 나코 그다음 어떠한 事情아레 그아들이 父母의 膝下를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아이가 異人이나 神人의 도움을 바다서 神奇한 才操를 배호고 그래서는 出將入相을 하고 그래서는 花容月態의 夫人을마지하고 또 그래서는 百年偕老에 子孫이 滿堂하다는 것이다。多少 틀린다고 한다면 미리 父母가 婚約을 定해 놋느냐 안느냐 그處子를 向하야 權門勢家의 請婚이 들어 오느냐 안느냐 等 極히 平凡한 事實以外에 지거나오는 各人物의 姓名뿐이다。

그러나 요近來의 長篇小說도 역시 千篇一律의 形式을 갓추어 가고 잇스니 即 맨처음에 一雙의 靑年男女가 登場하야 사랑을 속삭이고 그다음 그 戀愛가 다시 三角 四角 五角 六角으로 多角化하야 葛藤이 생기고 그래서 그 結末은 悲戀으로 꼿마친다는 것이다。勿論 舊小說의 千遍一律에 比하야는 그 互相의 差度가 좀더 커지지 안한 것은 아니로되 좀더 넓은 視角으로 보아서는 그역시 千遍一律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戀愛만이 우리의 全生活이 아니요 또 戀愛라고 다식판에 박어 내놋는 것은 아니지 안한가?

그러한 戀愛小說의 作者들은 小說보담 못을 도리키어 차라리 新派劇의 拾本을 쓰라。그들은 아마 大衆에 對한 迎合을 口實삼을찌 모르지만은 乾燥無味한 그 千遍一律에는 大衆도 어머 厭症을 내인지 오래일 것이다。要컨댄 問題는 그 作者自身의 貧弱한 心臟과 乾燥한 머리로 터 말리 說明되지안는다。

東海日記
(二) 李燦
八月×日—於・新昌港

어꼿住民은 도려 이를 嘆息하는바지만 漁業이 그다지 隆盛치안흠으로 드려매운배가 띄엄띄엄 해일만하야 平地에서도 바다의 浩闊을 그대로 맛볼수잇고 市街로부터 不過數步에 제법 넓고 하이헌 白砂場마저 버려저잇서 一路過客도 暫時逍遙를 즐길수잇슴은 愉快한일이다。

발이 『도랫가』에 미처자 나는 보지못할것을보고 눈을 돌녓다。그러나 다음순간 나는또 나도모르게 황홀하니 다시 바라다보고잇는나를 發見하고 얼골을 붉히군하엿다。

海女! 들으면 對答할距離의 파여란물결속에 뿌린듯 點點한十八九의 娘子軍 매살그대로인듯 물먹어 달나부튼 옆은 치마적삼을좇하야 물속에 잠겻다 솟엇다할때마다 나타나 아롱지는 탐스런 乳房의線이여 아담한下肢의 屈曲이여。

안떠러지는 발을옴기여 다시 用務를 이른러니 공교히 巾着組合 新規巾着船進水式參席으로 大槪不在다。그것도 求景할겸 공을무러 新昌里東港까지 터들어가니 文字그대로 『滿艦飾』의 一隻巾着船이 左右 두개의 搬荷船을호릿에 임이 發動을 始作하고잇다 散步 거름을 갓가히하여 眼鏡을닥고 바로보니가 저각색 錦繡한 花列과 旗幟속에 둥실가튼 사람이 『すずなり』다。發動船이 準備를 어느 남엇시 오간다。때마다 내리는 여는업고 도나오신낫의 諸氏 압흘다투어 오르군하신다。

여옥고 뿌! 뿌! 多感한첫 고동을 八月蒼空 드놉히 울니며 그들은 움죽이기시작한다。그들은 떠난다。몬저 巾着이 그뒤를 이어 두개의 搬荷船이—

前進前進! 蒼海萬里로의 豪壯한 登程이다 怒濤狂風을 무릅쓰고 數百萬魚群을 擊捕하려는 大海勇士의 壯勇한 進軍이다。雨雷가튼 拍手소리 울여온다。附近의 大小漁船이 一齊 警笛을 울닌다。갓거라! 저意氣! 무엇이가 내귀人가에서 속삭이는 듯하엿다。

보려는사람은 한사람도 만나지못하고 歸路 偶然히 且海上運輸業 K君을만나 이끄는대로 압사구비를도러 海水浴터를 차젓다。물에저른內衣를 엥버리듯 버서던지고 펄펑 눈바로 뛰여드니 잇바다 數多한 적악돌의 떠거운도 한순간、무어라할 氣分인요。말로 塵世의二十餘年이 一瞬에 사라지듯 羽化登仙이란 이를두고 한말이아니엿나하엿다 不幸이 潛航艇인지라 K君처럼 勇敢히 海心으로헤엄처들지못하고 이윽고 기여올너 바위등에 四肢뻿고 눈을감으니 문듯 桂月의 生覺이 소스라처이러난다 記憶도 새롭다。그가 最後로 上京하기바로 前해 이여름、또한 바로 이山모롱이岸頭를 억개를 나란히하고 거닐며 閑談하다가 『저는 海邊사는 색시가 조쿠습니다』하니 『웨요』하고 처다보든 그우슴어린얼굴에 영롱하든 눈초리여! 아아 宋! 新昌은 依然히 健在코 그때의이바다도 如前히푸르다만……

新刊評
林學洙氏의 詩集
石榴
咸大勳

林學洙氏의 詩集『石榴』는 모다三十二篇을 모흔 一百二十頁의 詩集으로 여 六版 序文을쓰지안코 『牽牛』에 序文을쓰고 詩篇頭에 序文을쓰고 보드래도 『牽牛』이어다 作者도 이것을 所重하게 생각하엿든지 詩集冒頭에는 序文이 『牽牛』에 거 特히 注意되는것은 敍事詩이것을 證明할수잇는것이다。

이제 이牽牛는 아직前篇만이 어 그것으로完全한詩로 完結되려하여 거 어렵지만 여기三部로 난호여 쓰여진것을 보면 어全篇에 흐르는 衣裳는 人間生活에 가장重大한 良心을 天上의 牽牛와織女의 사랑속 先行한 牽牛로서象徵하려하엿다。

作者는 第一部에서 牽牛가契然히 나타난 『비ー너스』에게 誘惑이 되여 『소와羊떼와 애달픈 노래와 모다들 잇어버리고 一年을 그리우는 직녀까지도 생각할 餘裕가업시 하낫 白鳥에 몸을 실고 짝아득ー히 蒼空에 둘 그려며 멀리멀리 地球로 向해날어가게되엿다』는것으로써 良心을 파는 牽牛의 悲哀를칠칠 히끗는 哀痛의 붓끗으로 그리엿다。

그리고 第二部에서는 七月초 여새 織女와만나는 七夕을 하로압두고 孤獨과배반에서오는苦惱를 참을수업시 총총히 하늘가 銀河로 織女를 다시만나러 가는것이다。牽牛는 自己所任을 다하는 長篇이 노흔다리를 건너 織女를 만나서는 거기 一年동안 만나지못한 그相想의一念을 하소하는 그傷哀的인 牽牛의告白으로 꼿을매친다。그리고 第三部에 잇서서 그는 自己의 시칠수업는 『失行』을 牽牛로하여금 悔悟식히고는 그 牽牛를 天國에서 地球로 떠러트렷다 여기에 作者는 그良心을 일코 失行하는 不純한 牽牛를 節操일흔 人間처럼 天國에서 地下로떠러트려 作者의맘은 良心을 告白하엿다

나의 解釋이 얼토당토안는것이라고 作者가 未安을 끼칠는지 모르나 어떠튼 어離은 敍事詩的要素를 充分히 가추고 朝鮮的인 純情의 表徵 牽牛와 織女를 主題로하야 作者의 魅力잇는 붓끗으로浪漫的이요 詩的感興을 그대로옮긴것으로써 놉게 評價하려는것이다 定價一圓送料九錢市內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科學뉴ー스
天然色텔레비ー온

로산젤스의 한 發明家가 天然色텔레비존을 맨들어 내기에 成功하얏다。赤、綠、藍紫의 三色으로 된 칼라、떼스크를 텔레비존의 스칸닝、렌스아페노코 像을 三原色으로 分析한다。그래 한個의 像이 세個의 像으로 分離 되야 보내지는 것이다。그러면 受像機에 잇서서도 亦是 세個의 像이따로따로 비치게되지만 急速度로 迴轉하는同時 한데 비치어 原色과가티 보이게된다

新刊紹介

▲女性 九月號(內容)제떠울를食(女性讀本)朝鮮人家女人風俗、家庭劇、結婚하는 동모에게주는편지 讀者로해道德한金天使夫人、紫男의匝惡論女性道所生活探訪記、各界名士가본현대 젊려女史、京城各女學校先生評判記(女商、同德、淑明)隨筆、實話詩歌 九月의創作陣 호화外數篇野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五八七八番 定價二十錢送料二錢

▲ホームライン 新秋九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錢

▲高麗人物誌(乾坤二冊) 金鳳植著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二圓

▲基督敎報 第一二二號 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어드름죽은깨가업서지고 살결을본바탕부터
곱고히게맨드는新家庭美顔療法

땀배오르는 여름날에는 얼골빗이 검어지고 여드름과 죽은깨가 생기게되고 거록에 흉해서 몸서고통을 바드실줄로밋습니다 멧구나 여름날은 어여쁜 매력과 맵시잇는 자태가 돋보여 서로 대하는때엔 만흠 여러분께서는 늘 美容에 주의하셔야됩니다。

◇ ◇

또한 여름에 살결의 겻닥을 얼굴이하여두시면 겨울때가되자 몸시 게 젊어지며 터성깨가장 중한 매력과 여여 불꺼지어서지게됨으로 여러분께서는 그런 벽이 업도록미리에 예방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죽 여름이되면 선천대사기능(新陳代謝)에 면활케됨으로 피부에대한 영향도잘못고 고와변대로 망쳐게만드는수가만습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을쓰시려 에는둘재이 우수한것을쓰서야되나니化粧品은크리도 늘 어여쁜자태를 보존하게되는 長點皮膚淸白美容劑의活性이 三四分치로로 가정에서 손쉽게 하로에두번식 三四分치로로 가정에서 손쉽게 아용할화장이되는만큼 화장을 안코라도자 본바탕의어여쁨을 명랑히발휘 할수잇기 바랍니다

저는이러케 어여뻐젓습니다
살결이히고華麗해저
분도필요치안어
(全州) 李慶順

拜啓 益益貴社繁榮을 몸소빌며 祝하며마지안는바이옵니다 저는 貴社의레오洗顔크림을 쓰기始作한지가 벌서 一年이 됩니다

참말로 써보지안흔者로서는아지못할 기쁨을눗길때 비로소처음이크림이 얼마나훌륭한가 를 깨닷엇습니다 그리고지금에와서는 粉까지도必要를느끗니다

기지안흘이만치 얼굴이히어저서 여러동모들의 美望의눈을 一身에등지고잇습니다 今後도永久히 愛用者가되려하오니 이번에도 一圓四十錢瓶一個를 火急히下送하여주심을바라오며 時急함으로 爲替로送金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來來貴社의 發展을빌며擱筆합니다

永年의근심꺼리든 여드름과검은빗이
(開城) 林萬雨

拜啓 初夏之節에 貴社의여러분들 泰安하옵나이까?

前番에보내주신레오세안크림을 쓰기시작한지 三週日쯤됩니다 저는 元來부터 얼굴빗이 다소검엇든데다가 學校時代에運動에熱中하엿든탓으로햇빗에타서 동모들한테 『에초피아 놈』는 놀니움까지 바더섯습니다 거기다 심한땀으로더욱 하게되 여드름때문에 晝夜로 번민의날을 보내고잇섯든차에 동모의집에 놀너갓다가 某雜誌上에서 貴商會의 레오세안크림이 小生과가튼체질에 優秀한效力을가지고 엇다는것을 보고 곳 注文하엿든것입니다

그래요새에와서는 그렇케심하든것이 여드름은 勿論이고살빗까지 히고매끈매끈 해젓습니다 모ー든것이다 貴商會의 恩德을多索한바이라고 感謝의 念을금치못하는바입니다 저의 모도 저와同樣으로살결이검은 편임으로 레오세안크림을써보라고 말하엿드니 『男子는검은 것이조타』라고말하엿습니다만 요새는 秘密로使用하고잇는지 살결이 여전보다칠신히고 어엽부게되엿습니다

今後도繼續하야愛用者될으로써 貴商會의惠德의萬分之一이라도 갑고저하옵나이다

鉛毒으로因한잔띄가 씻슨듯이나엇다
(新義州) 康京壽

冠省 小生은이곳 某印刷所 職工이온데 永年間 鉛毒에온몸에 부스럼이 생긴잔띄로 人前에 안볼만하엿섯승니다 五一年間을 여로팔미아마 밤잘도 편히 자지못하고 주야로 고민하고잇섯드니 거기다 便秘까지 자주하여 남보기에 흉하다는것보다도 제일압퍼서 참다못하야 藥局에가서 이약저약하고 使用하여보앗스나 별로신통한効果를엇지못하고 苦惱中에 偶然하게 어느雜誌上에서 레오세안크림이 잘듯는다는것을보고 곳購入하야 使用하여보앗드니 一年이채못된 요새에는 그말하기도 꿈지압흐던잔띄가 씻슨듯이 개이고 더구나 顔色이 前보다 칠신히게되야 二重의幸福을 한꺼번에어든 것봉에 엇절줄을 모르고 渡日하는차이며 여기에搬筆을不顧하고 붓을들어謝하는同時에今後永永愛用者되기를 言約하여 두고 붓을 놋나이다 頓首

處女時代

명랑한 新女性의 활기와 靑春이 꽃을 어엽뿐얼골에서 차도록하실 여러분! …자기만이 가지고잇는 겨여행을 깨닷지못하시고 남이 한다고 분단장을 하시나 여 런에시절에 가젓든히고 끝끝 살결을 오늘날에는일코 여드름 버집 잔리 햇빗에걸어검게되엇을것도되때문에 생기는오노와 번민을 해결키위하야……

家庭婦人

서부모 남편시종과 어린애 커다거리와 살님사리에 끝들하시는사이에 가정주부로서의 순진한녀성의 애교와 매력과 어엽뿐자태와 모성애에넘치는 매력을 家庭의平和를 위하야 늘보존하셔야됩니다 그러므로 분단장을 안코라도 늘 어여뿐자태와 살결을보존키위하야

職業婦人

직업상 하는수업시 매일분단장을 하시게되기때문에 분예결고 鉛毒에 중독이되어서 빗갈이 검고 푸르며 무엇어생기고 피부영양이나빠저서생기는 파래가는 회색과 매력을 다시차즈며 연녹을업새고일허버렷든 靑春의우슴을도로 찾기위하야……

오늘부터 속히 『레오洗顔크림』으로 근본적치료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男子諸氏께서는 美容的으로보담 皮膚營養料와 殺菌作用으로써 꼭必要하오니 햇빗에끌은분 남유달이얼골이거문분 여드름 기름이흐르는분은 단시일안에 根治가됩니다

●정가—普通瓶(약한달분)一圓四十錢 德用瓶 三圓四十錢 데파ー트젤 一圓五十錢이오며 송료三十錢을 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는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동지하시는대로조선문으로된 新家庭美顔法을저거드립니다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番

夏期下痢
不良食餌性下痢
寢冷性下痢
細菌性下痢

新吸着劑
アルシリン錠
아루시링

夏期下痢는 腸內의毒素吸着과殺菌이先決!

アルシリン錠은 銀錠末一分과 鹽化銀珪酸四分으로된 新吸着劑로서 腸內의 毒素吸着力은 强大하지마는 消化酵素의 吸着은微弱한特徵이有하고 小量으로도 能히効果를發現하야 適用할지라도 食慾不振、便秘等이되지안슴니다

夏期에頻發하는 急性腸加다루並各種의下痢에

アルシリン錠은 一般下痢의 誘因인 腸內의有害物質과 有害細菌을 吸着解毒함과同時에 腸粘膜面을 被覆保護하고 腸內의殺菌消毒의作用을 發揮함으로써 特히夏期의腸疾患에對해서 賞用됩니다。

【適應症】急性・慢性腸加答兒・腸內異常醱酵並腐敗・食餌性中毒・赤痢 지브스等의傳染性 腸疾患의下痢・鼓腸等

10錠(30錢) 20錠(50錢) 50錠(1圓) 100錠(1圓80) 300錠(4圓50) 有名藥店에 有り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武田發賣品

東洋劇場
八月十八日부터二十日까지 初期三日間—絶對豫定期! 劇團靑春座北鮮巡演 告別公演 ▲上演劇本▼ 崔獨鵑作 『女人哀史』(六幕八場) 林仙圭作 『將棋狂受難時代』(一幕)
여러분의至極하신愛護下에公演中이든靑春座는今番에劇團創立十八日부터 三日間上演으로이번中央公演을끗마치고北鮮巡演의길을떠나게되엿습니다 『女人哀史』와 『將棋狂受難時代』를最後로보시며 來廿一日부터 劇團 豪華船 北鮮巡演 劇團 靑春座 京城公演 朴英鎬作 『아들도딸도안흔님』 二幕 李雲芳作 『漁夫의愛妻』(四幕)

團成社
十九日부터五日間 十時半、一時半、七時三回興行
◆大每東日國際뉴ー스 ◆朝日世界뉴ー스 ◆讀賣發聲뉴ー스 ◆北支事變特報 A、와ー나ー내企劃提供 B、漫畫、바데이의東洋來襲 〃、바데어의逃避
◆新興키네마現代劇 監督 靑島順一郞 主演 植村謙二郞 高野由美 『날개도친노래』
◆뉴ー어먼ー드映畫 監督、主演 작구・부캬낭 『合歡の並木』
納涼大萬辭! 二大名畫週間
八月二十日부터納涼特別公開! 코렴비아超特作努級二百萬弗大陽篇 巨匠호랑그갸뿌라・氏監督 『失はれ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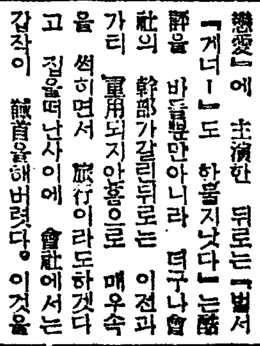
優美館
PCL超特作全發聲! 原作脚色監督渡邊邦男 『男は度胸』 岡讓二氏主演 五條貴子 堤眞佐子 英百合子 助演
大豫告 高原의復讐鬼、쿨드딘카ー쓰一九三六武裝한市街、第七號國際列車殺人嫌疑者 乞期待!
電光三九五 二十日ヨリ二十三日マデ四日公開 階下席十錢均一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 一〇四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若き日の一頁 コロムビア超特作日本版 チヤールス・スピッツフオードー主演
敵前上陸 市川壽三郞 貴志洋子主演
肥後の駒下駄 (東亞ニユース每日上映)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八月二十日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三回上映 낮 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映 밤 七時半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헤리하사웨이氏監督作品 (二大傑作大名畫大公開) 戰闘大活劇 벤갈의槍騎兵 主演 케리ー쿠ー파ー 후란촛트ー氏 가리ー크란드ー氏
◇マキノ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不朽의빗나는武人의精華版 時代活劇 龍虎槍騎隊 監督…廣瀨五郞 主演…大内弘 光岡龍三郞
全發聲 漫畫 一卷 全發聲 大每뉴ー스 三卷

趣味 娛樂

馘首된게ー나ー
實話映畫로轉禍爲施



『第七天國』에 主演을하야서 世界의人氣를 一身에모은以來 數年間은『폭스』社의 別格스타ー로서 厚待를받든『자ー넷트、게너ー』도 時移事變해서『비개의戀愛』에 主演한 뒤로는『벌서『게너ー』도 한물지낫다』는酷評을 바듬뿐만아니라 더구나會社의 幹部가갈린뒤로는 이전과가티 重用되지안흠으로 매우속을 썩히면서 旅行이라도하겟다고 집을떠난사이에 會社에서는 갑작이 馘首를해버렷다。이것을눈치채린 新興의 세레쓰닉크는 即時로 彼女와 契約을하고『스타ー의誕生』이란 題로 色彩映畫에 게나ー를 主演식혓다。

이映畫는 內容이 일즉이 映畫界의 美女에 지나지못하든 彼女의 出世實話와 꼭가틀뿐만아니라 會社側의 巧妙한宣傳도奏効를해서 依然 評判에게 一大센세이순을 이르키는同時에 게나ー는 依然 更生의 機會를엇게되엿다

이事件以後로는 人氣俳優의實話映畫의 流行밥 光脉이보힘으로『메트로』에서는『위ー레스、비아리』와『쏘피ー닷카ー』를콤비해서 故名女優『마리ー도레스라ー』의 半生記를 그린『모리ー』에게 恩寵잇스라』를 製作하려고한다。그러나 故人과 깁흔交友關係가잇든『비아리』는『엇전지 故人의 實話映畫에는 出演하고 십지안타』고 婉曲히 拒絕하나 會社側에서는『비아리ー』와『도레스라ー』와의사이에 깁흔交友關係가잇섯든點이 正히 宣傳價値의 核心이라고해서 어데까지던지『비아리ー』를登用하려한다고한다。（寫眞은게ー나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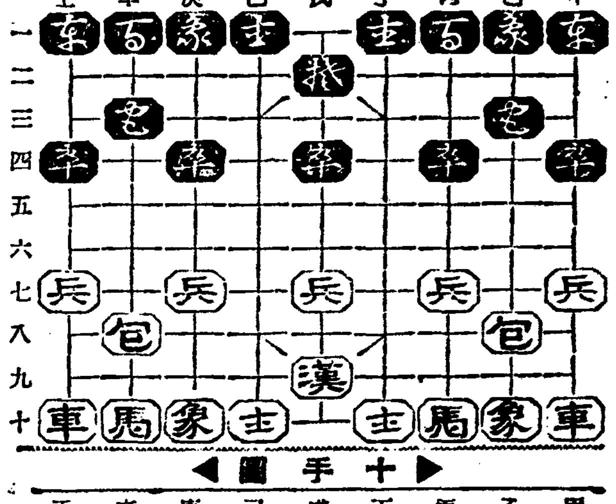
佛蘭西의『깽』映畫
『巴里의掠奪者』
東和商事에近着

佛蘭西映畫界에서『깽』映畫의 勃興은 近者에와서 顯著한傾向을가지고잇는데 今春의『港口의掠奪者』에서 第一級의 活躍監督으로 堂堂한 風格을보힌『모ー리스·두ー르누르』의 代表作『巴里의暗黑街』（原名『法의일홈미테』）가 東和商事에 近着하기로되여잇다。이것은『포ー르브란제르』의 犯罪小說을 映畫化한것인데『세느』河에 떠잇는 慘死體를 發端으로 巴里暗黑街의巨魁와 巴里警視廳의 探偵과의血戰 수수꺼기의美人의出現으로부터 暗黑街의 演藝을그린『파데나랑』超特作으로서 主役은『氷浴』『熱風』의『마르셀·쏘르항』『南方飛行』『우리동무들』의『쏘르르、바네르』와『가부리엘、가브리오』의三名優가 共演한것으로서 매우 悽愴한 犯罪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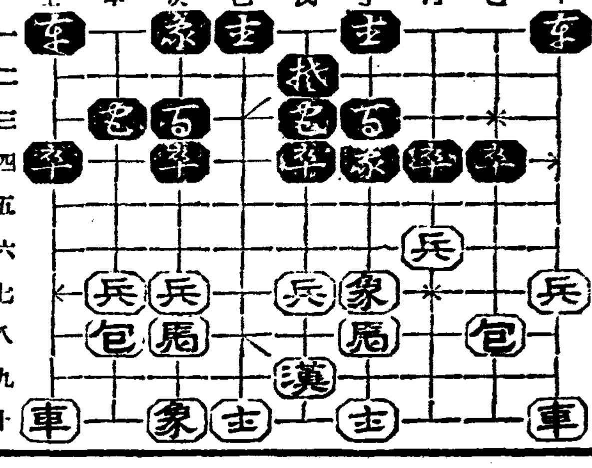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漢 李在鳳　楚（先手） 許 鐘

◀始局圖▶



◀十手圖▶



甲二包—乙二　辛十馬—庚八　丙一包—丁三　壬七兵—辛七　乙二包—丁二

丙十馬—丁八　辛一包—庚三　丙七兵—丙六　乙三包—戊三　乙十象—丁七

라디오

二十日（金曜）

◇午後六時三〇分 어린이映畫이야기『牧場의노래』成東鎬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沈明燮 ◇同八時 時局講座 極東의禍인支那의排日 方應謨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水宮歌 歌天下太平 鼓手 丁元燮 歌 韓素玉 ◇同九時 라디오유모어小說『流線型』 原作…申左鉉 脚色…孫敬洙 （그의아들）…朴仁哲 朴瑩奎（이웃사람）…孟晩植 朴明愛（그의딸）…沈恩淑 解說 宋在魯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琵琶 ◇同一時四〇分（大）野球 ◇同六時（長）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城）童歌 ◇同七時三〇分（大）新日本音樂 ◇同七時五〇分（東）講談 ◇同八時二〇分（東）管絃樂 ◇同九時（東）時事解說

二十一日（土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婦人時間『姙娠婦의營養』 朴容駿 ◇午後〇時〇五分（東）하ー모니카合奏 一、行進曲『하ー모니카를가진젊은사람』 陶野重雄作曲 二、行進曲『少年部隊』 陶野重雄作曲 三、圓舞曲『東洋薔薇』 이빠노뷔치作曲 四、行進曲『髑頭수리旗下』 빠ー그나ー作曲 五、喜歌劇『輕騎兵』序曲 숩페作曲 奈日本하ー모니카聯盟合奏團 指揮 陶野重雄 ◇同六時三〇分 童謠와唱歌 레코ー드音樂 一、齊唱 丁틈 二、齊唱 눈、꼿、새 三、獨唱 기차가달아오비 四、齊唱 누가누가잡자나 五、獨唱 고향하늘 六、齊唱 잠대배 七、獨唱 꿈방아 八、齊唱 달마중 九、獨唱 월게꼿 十、齊唱 그뎌그떠 十一、獨唱 엄마생각 十二、齊唱 옷음웃을때 十三、齊唱 등대 孔德어린이會 獨唱 池七順 指揮 金容德 伴奏 金信泳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植物과傳說』 李德鳳 ◇同八時 趣味講演『納涼天文』 韓琰表 ◇同八時三〇分 古談『風神』 ◇同八時五五分 伽倻琴併唱 車齊晋 一、短歌 竹枝詞 二、唱劇調 沈彼中流 李素香 杖鼓 韓成俊 ◇同九時一五分 誦書『前赤壁賦』 讀 娘子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東）하ー모니카合奏 ◇同六時（東）天然物 ◇同六時三〇分（大）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반드네온獨奏 ◇同七時〇分 新名歌劇 ◇同八時五分（東）草笛 ◇同八時三五分（東）歌繪卷 ◇同九時五分（城）國民詩歌

二十二日（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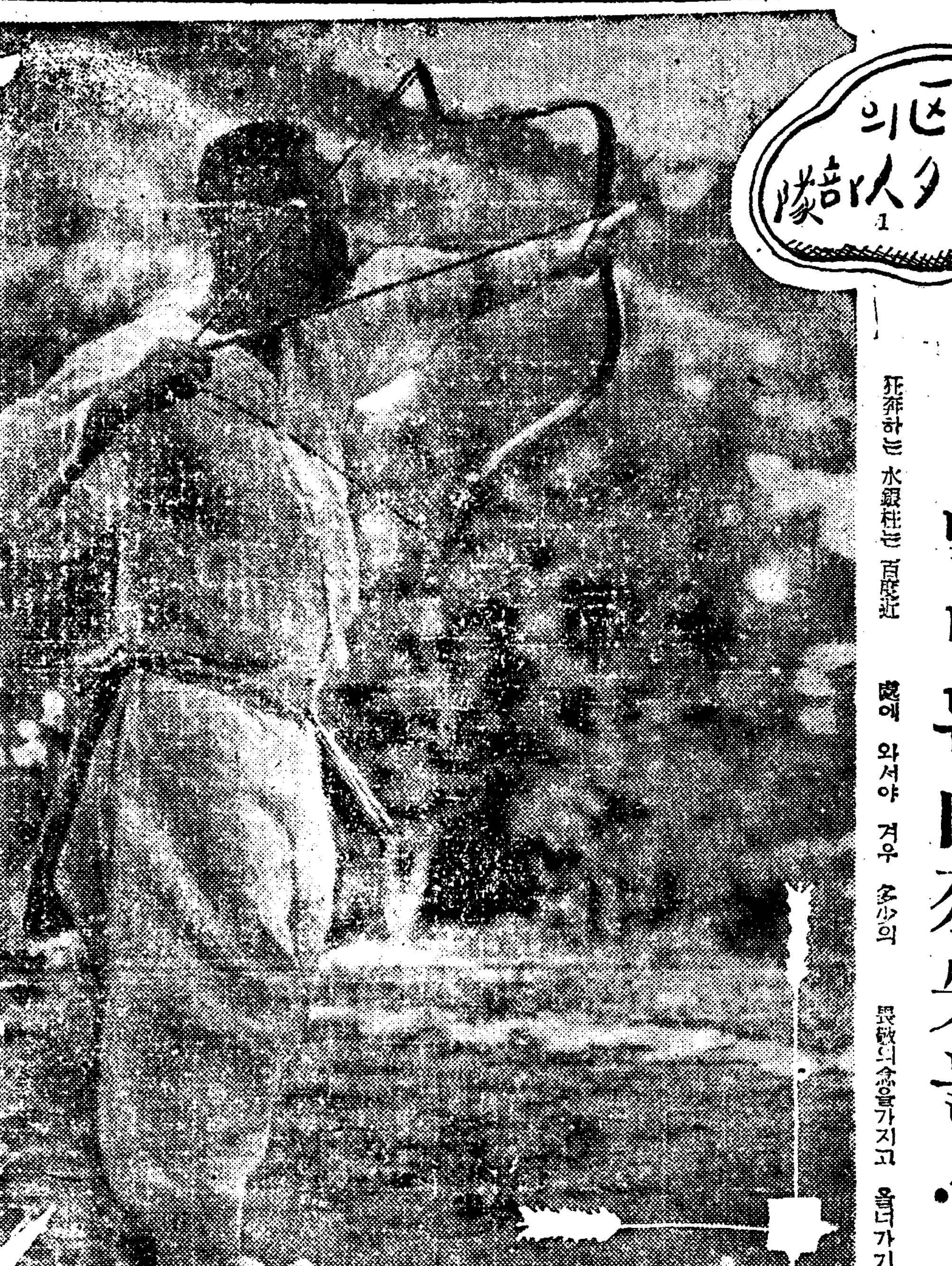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春香傳中新官到任하는데』 朝鮮聲樂研究會員 ◇同六時三〇分 兒童劇『맹꽁이의울음』 兒童劇研究協會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權相老 ◇同八時 流行歌 一、記憶의노래 二、山間處女 三、春夢 四、國境의밤 五、靑春打鈴 張城月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二〇分 歌謠 一、界面頭擧 二、弄 三、羽樂 四、還界樂 金明仙 權化容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四〇分 라디오코메되 人生後悔兵 全二幕中第一幕 （配役）주영더리…太乙民 許풍선이…沈影 金玉順…李淑 李主事…孟晩植 萬福…李錦 乙成…尹一淳 메피로그…南宮仙 演出 延鶴年 效果 梁超 劇團中央舞臺 ◇同九時一〇分（平）西道歌謠 朴明花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滿洲洋樂 ◇同一時二〇分（東）漫才 ◇同六時三〇分（東）名作物語 ◇同七時三〇分（東）國民歌謠 ◇同七時四〇分（大）日曜演藝 ◇同八時一〇分（東）浪花節 ◇同八時四五分（大）歌謠物語

納凉区의 外人部隊 1

颯颯한바람속에 날니는白羽矢들!



狂奔하는 水銀柱는 百度近處에 와서야 겨우 多少의 畏敬의念을가지고 올너가기를躊躇하는 요사이。地球는 宛然히 한개의 焦熱地獄을 이루고잇다。

이러한때에는 모든生物이 그喘息만을 保全하는것으로 多幸으로 알법하지마는 그래도人智와 文明이 어데 그래야지、冷房裝置니煽風機니하는 가진 文明의 利器는 正히 炎帝의牙城을 肉迫하는 精銳部隊도업지안타 그러나 이러한 近代的納凉法에比하면 한개의 外人部隊와도가티 자못 로맨틱한몃가지의 課題를 차저보려고 카메라同伴으로 仁旺山중허리 松林사이에 버려진 射場으로 차저갓다

夕陽나절에 箭商을 이메고 들식 셋식 모히는 활량들。나이는 모다四十줄以上이니 여기에도 時代의 面影이엿보힌다 먼저 줄을메우고 끔무룸끼고 射手에 列을지어 느러서니 武裝은 整備되엿다

直線으로 그어 三百메ー터가량이나 멀니 떠러저잇는 貫역을보고서 금방 금방 터질드시 뒤으로 잡아당기는활줄、緊張의 絕頂에 이르어 느한刹那 항울치는 소리가 락하면서 白羽의 화살은 颯颯한 바람을 내면서 날른다。「一發! 二發!」이렇게 날니는 화살이 直線으로、카부로날려서 멀니 도착만치 보히는 관역을 맛출때 읍은 활량은 활채를 내리고 한번 會心의 우슴을웃는다

編物ならの日本一 主婦之友 九月特大號の豪華附錄

秋の毛絲編

戰爭大特輯

愛國の血湧き、戰火に肉躍る!!

慰問袋には主婦之友を!!

어머니、마누라、누이와가다 多情한『主婦之友』는兵士들이무엇보다도조아한답니다

「主婦之友」에는新聞에도發表하지안는重要記事를滿載發表!! 皇軍의戰勝뉴ー스는新聞을、全國民의힘잇는銃後의守護는반다시「主婦之友」를보아주십시요!! 一段에祖國愛에불타는熱血의感激美談뿐!! 여러분빠짐업시「主婦之友」를읽고 우리의祖國을직힙시다

空襲だ!! 婦人はどうすればよいか

東部防衛司令部特別發表!! 戰爭의勝敗는 家庭의防衛는 婦人의손에 이야말로 못보면큰일! 어서 速히읽어두시요

國防婦人會長と愛國婦人會長が 出征した家庭の母と妻に贈る

出征兵士의 家族은 銃後의 婦人의 必讀할 法話

名譽の戰死者の妻と母に涙の法話 間宮英宗

戰火の北支から良人の遺骨と共に歸る 前軍司令官 田代中將夫人

殷殷한砲聲을드르면서 陣中에逝去한田代前支那駐屯軍司令官의遺骨을가지고온雪枝婦人의눈물

香月軍司令官母堂の苦鬪の生涯

通州虐殺事件を忘るな七月廿九日

獨身か再婚か 未亡人讀本 菊池寬

『娘讀本』『人妻讀本』보다도切實한것이『未亡人讀本』입니다。이問題에 이筆者、日常不滿에찬마음! 선뜻所見을 어이는듯 大評判!

吉屋信子先生の大傑作新連載

『良人の貞操』『男の償ひ』의三部作으로그어느것보다도滋味잇는大悲劇小說 妻の場合

一流大家の傑作競べ!! 日本一の小說陣

悲劇小說 禍福 菊池寬

評判小說 母戀鳥 吉川英治

感動小說 春園 橫光利一

絕讚小說 緋の蜘蛛 片岡鐵兵

熱淚小說 人肌觀音 小島政二郎

熱血小說 間諜の妻 山中峯太郎

明朗小說 胡椒息子 獅子文六

新婚三人三脚 中野實

人氣小說 子は誰のもの 竹田敏彥

（本誌獨占）故國の皆樣へ 原節子

特別附錄 家庭マッサージ療法

秋の草花と野菜の作り方

高峯三枝子と佐野周二 花嫁花婿問答

赤ちゃんの出來る祕法

おけさの島旅日記 吉屋信子

赤十字看護婦の愛國美談

流行化粧の祕法公開

肌を白くする蜂蜜美顏法

日焦けを生かした流行化粧

特效療法の急所公開

腎臟病の新しい食餌療法

子供の傳染病の豫防と手當

お料理特別附錄贈呈 變った季節料理大特輯

大流行の模樣編 圖案集贈呈

主婦之友編物日本一が美事實證されて大評判!!

日本一流의先生이全部集合하야 心에苦心을거듭하야不充分한것은 一의自身잇는것만發表。이것이면 누구나뜻을수잇게苦心한流行型이 얼마이고 뜨더고처서最後에日本製이나 무엇이고簡單히맛들수잇습니다 귀여운에기네옷이나 멋잇는流行으로『主婦之友』編物日本一의定評이 確然히實證되엿다。……이豪華附錄이

五大附錄つき 六十錢（送料十錢）

東京神田 振替一八〇 主婦之友社

中部版

製造와販賣의對立 兩方讓步로遂解決
白蔘은組合員에게販賣、自由販賣도無關
明朗化한開城蔘業界

【開城】작년팔월 개성인삼주식회사(開城人蔘株式會社)가 창립한이래 개성삼업계는 일대혼명적 과정에 봉착하야 제조자측과 판매업자측의 쌍방대립으로 험악한 투쟁을 거듭해오드니지난오월「전매감독」의 알선지시아래 쌍방의 양보로판매업자의 상권옹호기관인 개성인삼판매조합(開城人蔘販賣組合)의 창립을보게되면서 공기는얼만큼 완화되듯하얏다 어것은죽 전기제조회사에서 제조한백삼을 전부조합원에게만 판매토록할것—또는 판매가격은 전매감독의 지시아래 쌍방이 고려협정할것—등이가장 중심되는 문제였든것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실로쌍방의리해관계가 큰문제인만큼 오랫동안 미해결(未解決)의 결말을못짓고 이래일개성상을 끌어오게되여 신삼기(新蔘期)를 약한달압흔 개성삼업계는 커다란암운(暗雲)이 가로막혀잇드니 지난십구일 전기삼업주식회사사장공성학(孔聖學)씨와 전무조용섭(曹龍燮)씨 판매업자대표로 손홍준(孫洪駿) 림한선(林漢璿)량씨가전매국회의실에모혀 쌍방의 판매한양보심을갓고 격의없는 간담으로 협의를거듭한결과 드듸여 원만한 해결을보게되여 종전대로 백삼전부는 조합원에게만팔도록되엿스며 경우에의해선 회사자체가 자유판매하야도 무관토록 완전한결정을 보게되엿다하니 암영이떠돌든 개성삼업계는 이제야 명랑성을보게되엿것이다

男便子息내려고 戀愛逃避行

【仁川】본적을 경남(慶南)에두고 부강원[illegible]에서 적공생활을 하고잇든 조운이(趙[illegible])라는 여자는 금번 [illegible] … 과한가지 각부회에 부장과 부부장을 선거키로하얏다한다

金融梗塞、賣買不振 水原商界極閑散
一部에선前途憂慮

【水原】불지나에서 총소리가나자 유산무산계급을 물론하고신경이 과민되여 금전융통이 끈치다십히 되엿슴으로 수원읍상게에는 매매가업서각상점에서는 경영난에 빠저잇스며 한참조련 회류계경기도 천쇠하야영업중지를 하는기생이 매일속사인식이나되며 타처로 전출하는자도 불소하야 일반상계에서는 전도를매우근심하기를 마지안는다한다

清州의國防獻金 四千七百圓突破

【淸州】북지사변발생이래 청주에서는 날이갈사록 국방헌금하는자가 격증하고잇는터인데 청주경찰서에서만 십팔일 현재의 취급한것이 사천칠백삼십칠원사십전에 달한다고하며 … 날그날량식을 엇는처지에 금번은전가족이 굼다십히절식을하고 헌금을하엿다한다

仁川商工會議所 聯合部會開催 時局問題等으로

【仁川】인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점점중대하야가는 시국문제로인하야 어십일 오후사시부터 연합부회를 개최키로 하얏다는바 동회에서는 시국문제에 대한것뿐만아니라 금번 의원보선

中堅青年講習會 楊州公普에서二日間
柴荷青年團主催로開催

【楊州】지난십칠일오후한시부터 시둔청년단(柴屯靑年團)주최로중견청년강습회를 양주공립보통학교(楊州公普校)안에서 개최되여 사십여명의 단원과 십여명의지도자의 집합으로 개회식은 의정부신사(議政府神社)에서 천간사(千幹事)의지휘로 엄숙히거행하고 오후두시부터 원산군수(遠山郡守)의 시국인식에대한 강연과 농촌갱생에대한 호화로시작되여 화전간사(和田幹事)의 체조 유희 단가(團歌)와 남평사회주사(南平社會主事)의 갱생계획의요지급그지도에대한 강연이 잇섯고도라리간사(鰻瀨幹事)의제조도는 청소작업(淸掃作業)과뢰립단장(瀨立團長)의 강습으로곳을맛치고 자취의만찬회(晚餐會)로저녁을맛치고 밤여덜시부터는 농촌에대한 좌담회를열어 동아홉시반에맛치고 단원은 의기양양하야 교실침소로 도라가쉬고 이십일은 아침다섯시반에이러나 실내외의 소재를마치고 체조와 아침작업을한후 자취의 조반을 아침여덜시에마치고 영농개선에 대하야 한간사(韓幹事)의 강연과 천간사(千幹事)의 강습으로 오전열한시에 무사히 폐회하얏는데 이와가튼일을 농촌에 한가한틈을타서 자조한다는데 단원은 하나도빠지지안코 모다청강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貧農도五圓을獻金

【水原】송홍적선(宋弘積善)은 빈부를물론하고 지긔와정을다하야 흥분국방헌금 [illegible] 헌납

遝至하는國防獻金

蘇萊面의獻金

【蘇萊】부천군 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도 국방열은 날이갈수록 점점 고조되여 국방헌금을 소래주재소와 소래면사무소에기탁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십칠일까지 소래면에 기탁한거와 주재소에 기탁한씨명과금액은 다음과갓다

蘇萊駐在所取扱分 鞍峴里趙□宇變十圓 道倉里店村振興會十一圓四十錢 計一百二十七圓四十錢 蘇萊面寄託分 蘇萊面協議員一同十圓 下大谷振興會員一同四圓 道頭振興會員一同十五圓 上基洞振興會員一同 六圓 寒井振興會員一同八圓六十五錢 九美振興會員一同十圓 陽支洞振興會員一同 十一圓九十五錢 角岩靑年部員一同 五圓 上大谷振興會員五圓 芳山里民一同十八圓四十五錢 角岩振興會員一同 五圓 上荏日振興會員一同 五圓 重林振興會員一同十圓十錢 木東振興會員一同 六圓七十錢 家垈振興會員一同九圓七十錢 銀杏亭振興會員一同十四圓 乾支洞振興會員一同十圓六十錢 古基洞振興會員一同 二十圓三十錢 杜谷振興會員一同 三圓 崴岬振興會員一同 五圓 斗谷振興會員一同十一圓三十錢 城谷振興會員一同八圓五錢 內洞振興會員一同四圓五十錢 玉蓮洞振興會員一同四圓 越村振興會員一同 八圓五十錢 咸朴振興會員一同 六圓 劉興鳳 一圓 大角岩振興會員一同 三圓 德石洞振興會員一同 四圓五十五錢 新基洞振興會員一同 二十二圓二十錢 計二百五十六圓五十五錢

동면장김진영(金鎭榮)씨는곳부천군군사련맹협회로 송부하는동시에 일반의 애국열성에 감사함을마지안는다 한다

江華에獻金遝至

【江華】강화의 국방헌금운동은 적극화하야 압흘닷토아 헌금을 신청하야 지난 십칠일현재까지 헌금수속을맛친분은 다음과갓다

崔應變三百圓 江華釀造株式會社二百五十圓 文花仙百圓 沈薰澤五十圓 孔文弘卅五圓 金永善卅圓 尹致漢十五圓 尹聖宇十五圓 南宮埴十五圓 安穆良卅圓 金鍾奎十圓 安淑十圓 盧明信十圓 洪在駿二百圓 宋順奉百三十圓 森信運輸株式會社百圓 吳永燮百圓 崔允變五圓 尹時炳四圓 崔正燮二圓 金甲正二十圓 金有瑋二十圓 李世基二十圓 韓丙弼十圓 張斗榮十圓 吳合奉十圓 南宮烈十圓 金鎭榮十圓 姜福卿十圓 朴吉榮十圓 林德永十圓 崔佑賢七圓 尹誠心五圓 崔千鍾五圓 崔聖鍾五圓 金潤泰五圓 金炳暾五圓 黃勉周五圓 金奎鉉五圓 朴昌恩五圓 朴景福五圓 李鎬東三圓 安國泰三圓 南宮幹二圓 金膺培二圓 劉龍甲二圓 白元基二圓

仁川에詐欺結婚 남의집、딴新郎보이고
發覺되자新婦爭奪戰까지

【仁川】혼인하기전 선보일때는 남의집과 훌륭한이웃신랑을보혀주고 당일에참신랑이나오매 그제서야속은줄알고 신부를중간에두고 일대쟁탈전이 전개되엿다는천단적의결혼『텐센스』가잇다 인천부송현정(仁川府松峴町)경인순(金□順)(二三)(假名)은 주안정강마남(姜馬南)(二三)(假名)이라는 청년과약혼을하고 지난십구일대례를치르랴고 신부가 신랑의집에일으자 접은약혼하기전에 보엿든집보다는 말할수업시초라하고 신랑도전연틀님으로 신부를다리고오랴다가 동리사람들과신부를중간에두고 일대쟁탈전을연출하엿스나 신부측에서는 중과부족으로 받는계신부를 배앗긴채귀가하엿다는 일막이라한다

不義의씨를 둘이나 壓殺、遺棄한人妻
이제야縱露되여寧越署거처 春川檢事局에押來

【春川】작구한세월을두고 은둘불의의씨를 둘식이나 죽여버리은 어사나이래일은 저사나이로고도 그버릇을 버리지못하고야룰의의정을맷저 수유을 재우며료한생활을 계속하다가 그죄상이 백일하에폭로되어 범행에걸련된이이엇다 본동과 주소를녕월군 수주면무릉리(寧越郡水周面武陵里)에둔 김숙자(金淑子)(?)는 대정(大正)십일년초산얼에 불보장왕린(張王麟)이가만주(滿洲)로 돈버리를가게되자김(金)은독수 공방에서 외롭게그날그날을 보내게되엿는데 그해가을우연히 동리에사는황천복(黃千福)이라는자와 불의의정을통하게 되엿는바 드디여 불의의씨가들어 그이듬해여름 어느날밤에분만하게되자 뒷산『떡바우』라는바우밋테파무러버리고 말엇슴으로 안심한 전기 김(金)은 그행실은 곳치지안코 계속하야 안락한생활로 무장한만족을 어더지내든중 소화십년팔월부터 방원갑(方元甲)이라는자와 극히친하게되여 임신까지하엿는바 어둥해오월오일 옹동자를분만케되자 세상이 붓그럽다하야 동리뒤편 약삼리가령되는 산중어떤골속에 갓다버린후 유유히 령심에가책업시 지내엿다한다 그러나 천도가무심치아니하야 지난삼일명모단서로 전후죄악이탄로되여 그간녕월서에서 살인、시체유기등 죄명으로 엄중한취조를 받든중 이삼일전에 춘천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가치 넘어왓다고한다

金剛山保護工作
東京올림픽大會를압두고 附近火田民을移住시켜

조선(朝鮮)의자랑이선인 금강산(金剛山)에 면면히 조선각지는 물론 일본내지와 구미각국에서까지몰려오는 탐승객은 상당한수짜를 보이고잇는데 금강산(金剛山)소재인 회양군(淮陽郡)고성군(高城郡)김화군(金化郡)등은 회전왕국(火田王國)강원도의 중심지가 되여잇슴으로 외지에서 온탐승객에게 수치를 보이는바 적지안흠으로 강원도당국에서는 일천구백 사십년 동경(東京)서 개최되는 세계『올림픽』대회에 세계각국유람객들이 운집할것과동시에 외래의 금강산(金剛山)탐승객이상당히 만흘것을예상하고 재반시설(施設)을 구비할은 물론 전기한 회전(火田)을 정리하게되엿는데 그중 금강산전철(金剛山電鐵)부근 즉차창(車窓)으로 내여다보이는 부분을 위선정리하게되바 금변도에 칠백삼십팔정보에 칠백 팔십팔호를 외지로 어주식히게되여착착 실행중인데 그추세는 일반이극히 주목하고잇다고한다

月給이먼저凱旋
北支從軍廿餘運轉手 京畿道警察部通하야家族에

얼마전에 경기도보안과의 알선으로 북지전지에 자동차운전수로가게된 김순복(金順福)등이십명외의운전수는 십구일 열들하안의 월급사십여원식을그대로쓰지안코 고국의부모처자에게로 보내달라고 한계물에구십원을 십구일 경기도보안과로보내여왓다 이리하야 보안과에서는 곳 그들가족을불러서 그돈을전하야주엇는데 그중에도 종군운전수 김용철(金龍哲)의아버지는 시내청엽정(靑葉町)사정목일백사십일번지의사호 김광팔(金光八)이라는로인은 계원의위로하는말에 크게분개하야 청년의몸으로서 국가를위하야 종군한것은 당연한일이어늘 어쩌나롭위로할필요가 엇느냐고하야 계원을감격식혓다고한다

蘇萊公普校同窓會

【蘇萊】지난십일오후오권십시부터 부천군소래공립보통학교(蘇萊公普)에서는 정기총창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하엿다는데 통창회원 육십여명이출석하야추기운동회개최에 기부금을 모집할것을 결의하엿다

蘇萊서도防空練習

【蘇萊】지난십칠일오후칠시부터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面)에서도 비상시국에잇서 등화관제(燈火管制)를 실시하기위하야 소래소방조원일동은 소래경찰관주재소 … 방공연습을 하엿다한다

「오도바이」爆發 仁川京町에서

【仁川】말복(末伏)도 지난지수일이되엿스나 로염(老炎)은 조금도 퇴각지안코 오직 살인적폭서만이 습래하고잇서 작금의 온도는 실로 근년에 처음보는 기록까지 내엿다 여름에는 맛춤내 의외의 사고까지 내이어 지난 십칠일오후십시경 경정(京町)금(金)상회근방을 통행하고잇든 경성 황금정(京城黃金町) 금점모(金點某)의 소유『오도바이』가 일대폭음을 내이며 폭발하자 즉석에서 전소하고 다행히도 인명에는 손해가 업다하나 손해는 약구백여원에 달하엿다한다

支那人이獻金 仁川府에百圓을

십칠일에 인천(仁川)사는 어떤지나인한명이 인천부청에 차저와서 자기는오래동안 조선에서 평화하게 살아왓는데 이번 반도의비상시국을 당하야 그저잇슬수가업서 현금백원을 약소하나마가지고왓스니 방공기재의 비용에보태여달라고하야 계원을 크게감격식혓다고한다

花冠 【23】
長篇小說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세화살 (七)

「하긴 그러케도 로맨쓰의 열중이긴 허지……그러치만 그만큼 로맨쓰리기 너머 허박하지 안니?」

하고 정히는 도려혀 웃는다。

「히발!출율 좀 타지!」

해서 또 웃엇다。

「출을 툴때도 벌서 지낫스니 거정이지……그런데 글세 그연 로맨쓰 업는게 웃읍이면 저금이라도 해보잔다!」

「지금이라도……그러케 될가? 로맨쓰도 하는걸가?」

「하는거라니?」

「하는게 아니라 되는거 아닐가?」

「되는거?」

정히는 점점 동욱의 말이 어러워지는듯하다。

「지금이라도 로맨쓰를 해보잔다니 말야 로맨쓰란 우연히 되는거 아냐? 너이가 월미도서 달밤에 산보하다 만난건 우연 안냐? 우연히 애정관계가 일어날만한 환경과 기회가되는걸 로맨쓰래지 안을가?」

「참!」

「예정관계가 벌서 됏는데 인제 어떠케 해보나? 이제야 너허구 그이허군 기껏해야 연인끼리 산보던지、연인끼리여행이지뭐」

「그럼좋나!」

「그리게 아모리 유감이란 말이 실허도 그이도 로맨쓰만은 이왕 그런케히바하게 된걸 터 어쩌지 못할게다」

「그러니까 로맨쓰도 팔자구나예!」

해서 또 한바탕 웃는데 마침현관 문소리가나더니

「안면잇했데!」

하는 재하의 목소리가난다。

그러나 두처녀는 못드른체하고 저어 어야기만 계속한다。

「내말이 올치뭐냐? 우연히돼야하니 그런우연을 동욱주고 사길허니 어쩌니?」

「그리게말야」

「너나 인제꿈처럼 밀도 잇는 로맨쓰 해라 우리처럼 히버한건 하지말구」

「기지빠두……」

하고 동욱은 우섯스나 진작부터 머리속에는 아까해변에서 재하와 가지런히 안젓던것이번뜩거리며 잇섯다。

「나는 황재하와 로맨쓰가 되는것이 아닌가?」

또

「내가 황재하때문에 여기온것 아니요 황재하도 내가여기올줄알고 왓슬건 아니다。 우연이다。 정히와 배일현은 약혼자끼리 그들의 행동은 노골적인 애정행동이다 아까 현관에서 정히가 배일현의 억개에 매여달리던것 가튼… 나나 재하나다 감정상충동을밧는게사실이다 그러나 나도애인이 업고 재하도 애인이업고…또그런데이웃방에 잇고…연애가 발단되기아조 자연스러운 환경속로맨쓰분위기 속에 내가 지금재하와 더부러 가처잇는것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히가 그의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밤 깁도록 동욱의 머리를 설레엿다。

「그러나 모던뽀이 황재하따위와……」

동욱은 자기와 로맨쓰지대에 표착된 사나이가 하필 황재하임에 불만이 업지 안타。

동욱 역시 한 남성에게 바라는것이 먼저는 그철근(鐵筋)콩크리트의 고층건축(高層建築)도과가튼 높고 굿센체구(體軀)도 체구려니와 나아가서는 그런체구로도 오히려 지니기에 숨찰만한 더 멧배 웅장한 의지(意志)의 힘이다。 배일현에게는 체구는 잘팔막할지언정 의지가 잇다。 황재하에게는 몸이나 기분이나 다만 경쾌일뿐 칭중한 철(鐵)의 맛이라고는 차저내일데가 업다。

「될수잇는대로 이 황재하와의 로맨쓰분위기에서 탈출하자!」

결심햇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는 몸이 아프다고 핑게하고 따쓰공부도 고만두고 바다로나와련것이다。

바다엔 아어들이 조개를 잡고 잇섯다。

동욱도 잡고시퍼진다。 다시 드려와 수영복을 입고 나갓다。 한참 조개만 잡으니 등어려가 뜨겁다。 파도가 조끔도 일지 안는데를、메칠전 세일때 패여서 그런줄은 모르고 바대로 야트서 파도도 일지안커니만 여겻다。 더구나 모새둔덕에서 가깝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업시 팔을 쭉뻣고 몸을띄웟다。 내여섯번 팔을 놀렷을가 벌서 힘이 둘어 하체가 작고 가라안는다 그만 서버리리라하고 상체를 일으키려니 뭐! 발이 무작정 나려가는것이다。

急性 慢性 淋疾 速効 蔘茸五淋錠
淋疾
◎十餘年의研究와數千名의實効로絕對有効를壯談한다
◎人蔘鹿茸最强力殺菌
振替京城二三四六六番 朝鮮靈藥研究所

빅타ー 薛道植 北國萬里
李圭南 어서가자나귀야
(49479)

學生教員
在京留宿人大歡迎 高等留宿하실 理想的社會奉仕 詳細來問하시옵 京城黑石町六九 商工學校後藥水洞 仙庄藥水住宅事務所
朝報案內

保險金受領廣告
一金二千圓也 右記金額은天李昌世儀本年四月野村生命保險株式會社에契約中突然五月不幸으로別世하와今般張樂熙氏手續하시와正히受領함 追而同社의親切과迅速한取扱에對하야玆에感謝의뜻을表示함
昭和十二年八月 清津府水南洞 妻 李古粉

眼鏡萬年筆의 仕入은當店에
良品廉賣 商報進呈
眼鏡萬年筆卸 (K)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明電モーター販賣
中古各種モーター買賣 運送不問賣買、交換修繕 京城府觀水町一二六 製造販賣元中村電工所販賣部 電話光③一五九四番

朝鮮最初에 鑄物ホーロー 完備工場
極光工業株式會社
京城府永登浦 電話永登浦五一番
◎ホーロー看板注文大歡迎

21日ヨリ
松竹京都作品 鈴ヶ森
松竹大船作品 愛に生きる者
夜の鍵
ユニバーサル社超特作
主演 ボリス・カーロフ
不氣味な靜寂の中に百鬼も戰く科學怪魔の横行戰慄と恐怖の二重奏
監督 ロイドコリガン
(ヒツプの眼を持つ男)
地下幾百尺の坑道に人間愛と男性美を描く大船至寶藝達者の競演
主演 坂本武 飯田蝶子
深田修造監督
新星 中村正太郎入社第一回主演
林長二郎 坂東好太郎 川崎弘子 高田浩吉 藤野秀夫 大邱(?)
特別出演
豪華歌舞伎映畫の粹
東京・日日・朝日・トーキーニュース 北支事變特報 到着次第上映
明治座

登錄商標 世界
世界運動靴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電話光⑧二八〇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涤 專務 金景鎭

登錄商標 銀河水
銀河水고무신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산토닌넣 珊篤尼涅菓子)
무서운蛔虫을驅除합서다! 蛔虫卵은每日食用하는野菜김치等에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體內에서生長해서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各種病의原因이됩니다特히小兒는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예전부터信用잇고잘듯는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服用식혀서무서운蛔虫을驅除하고애기네를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類似品잇스니 商印에 注意

네오톤(NEOTONE)이夏季에適好한理由
夏節을當하면 病弱體는勿論 누구나 淡白한 植物性食物을 取하게됨으로 體內에榮養供給이 不足하게되야 抵抗力이 甚히弱하게됩니다。
特히呼吸器가 弱한사람에게는 第一만이 結核菌의侵犯이 무서울고 또한 胃腸粘膜의抵抗力이弱하게될때는 傳染病菌의 侵入을 밧게됩니다。
네오톤은 體內에榮養을 供給하야 呼吸器와 胃腸을 强化함으로 特히病菌의 傳染이만은 夏期에 適好한 强壯劑입니다。
(本劑를 服用하실때는 몬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사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產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瓶 中瓶 大瓶
네오톤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上期世界經濟情勢

中央銀行金準備七億增弗 貿易增大·物價高水準

國際聯盟統計

最近의 統計에 나타난 世界經濟情勢는 如左하다

世界貿易 一九三七年五月의 世界貿易額(金價額)은 前一個月과 同水準을 維持하얏다 一九三六年五月과 比較하면 約二六%의 增加이다

現有金準備 中央銀行이 保有하는 現有金準備는 一九三七年上半中 增大를 繼續하얏다。滿洲(蘇聯、伊太利及西班牙에對하야서는 規則的으로 資料를 入手할수업스므로 이를 除함)의 保有額은 十二月以來 七億二千五百萬弗(舊米金弗)가량 增加하얏다 이數字는 一九三六年中의 增金總額보다 若干 크다 爲替平衡資金의 保有額은 右數字에는 包含되지안엇다

一九三七年六月末의 現有金準備는 五月末에 比하야 一億九千四百萬金弗이 增加하얏다 增加는 모두 限定된 諸國間에서 이러낫다 米國의 一億九千四百萬弗 和蘭의 四千七百萬弗 英國의 二千五百萬弗 白耳義의 一千萬弗 波蘭及瑞西의 一千萬弗 콜롬비아의 各一百萬弗의 增加이다 一方 佛蘭西에서는 七千三百萬弗 南阿聯邦에서는 六百萬弗의 減少를 보고 나머지는 加奈陀及蘭領印度가 喪失한것이다

重要原料品價格 若干의 重要原料品價格은 一九三七年三月末까지의 十三個月間에 急騰을 示하얏다。亞鉛、鉛、銅、고무及小麥의 價格은 倫敦市場에 依하면 今年三月末에는 一九三三年五月의 約二倍로되어잇다 그러나 아직 「펄프」은 騰貴하얏스나 그以來 右大部分의商品의 價格은 一九三六年五月보다도 高水準에 잇다 小麥의 騰貴는 七六%、瓦斯用石炭은 六〇%、鋼은 五四%、亞鉛은 四九%、鉛은 四五%、鐵은 四四%、고무는 二九%、錫은 一九%、石油는 一二%、羊毛는 九%、스팀用石炭은 八%、棉은 六%、各히 上昇하얏다

造船 世界工業活動의 增進은 造船에 關한 數字에 依하야도 亦是 證明된다 世界全體로서의 進水噸數는 一九三七年上半期中 百二十萬그로스噸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三十三萬五千五百噸 即 三九%의 增大이다 主要造船國의 進水噸數의 增加는 一九三七年上半期와 前年同期를 比較하면 以下와갓다 日本의 十一萬八千六百噸(一三七%)、英國의 六萬六千噸(一八%)、獨逸의 六萬二千五百噸(三九%)、和蘭의 三萬九千九百噸(八六%)、米國의 三萬九千六百噸(一二三%)、佛蘭西의 六千百噸(九%)、伊太利의 二千六百噸(三%)의 增加이다

建造中의 噸數 六月末의 建造中의 船舶은 世界全體로서의 建造噸數로보면 造船活動의 增進을 表示한다 世界全體로서의 建造中의 噸數는 一九三六年十二月末에 比하야 四八%가 增大되엇다 그러나 一九二九年末에 達하얏던 最高水準보다는 七%가 低하다

建造中의 噸數를 一個年前에 比하면 伊太利는 七倍、白耳義는 五倍半、米國及日本은 二倍以上이다 佛蘭西의 增大는 四八% 英國四一% 丁抹三三% 和蘭二七% 瑞威二二% 獨逸及瑞典 一二%이엇다

今日財界 (二十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 賣 [illegible]
◆絲 (單位錢)
[illegible]

鴨綠江及圖們江 發電覺書調印

百六十萬「키로왓트」電力資源 廿日、大野總監調印

大陸産業의大動力으로서 鮮滿一如의大方針下에計劃된 鮮滿兩當局의『鴨綠江、圖們江發電事業에關한覺書』調印式은 廿日午前十一時半부터 總督府總監室에서 (朝鮮側)▲大野政務總監▲松澤外務部長▲林財務局長▲大竹內務局長▲榛葉土木課長(代理)▲坂上電氣課長 (滿洲國側)▲佐久間大使館書記官▲吉田外交部事務官▲谷新義州駐在領事 等參列下에 擧行하얏다 同覺書는 時局關係로 多忙한때인만큼 돌려가면서 調印하는形式을取하야 이미 去十八日新京에서 滿洲國産業部大臣呂榮寰 間島駐在總領事川村博 安東駐在領事岬山靖次郞三氏의署名調印을 終了하얏음으로 이것을携行한佐久間書記官等이 來京하야 大野政務總監의 署名調印을 要求한것이다 大野政務總監은 이에 署名捺印을 終了하고 이에 全部의 手續을 完了하야 鮮滿産業開發에 劃期的事業의 第一步를印한것이다。調印한覺書全文은 八個條로되고 事業에關한 鮮滿兩者의 協力援助를 盟約하얏다

開發要綱

(寫眞은 大野總監의調印)

一、開發方法 鮮滿에 各其會社를 設立하고 此二社로하여금 開發에 當케함

二、發電力 本發電事業은 鴨綠江本流數個所에 堰堤를築하고 百六十萬「키로왓트」의 發電을行하나 우선 下流地方一個地點에 合計約八十萬「키로왓트」의 發電所를 昭和十六年까지에 建設하야 其中約三十萬「키로왓트」는 昭和十五年中에 發電할수잇다 第一期以後에 就하야서는 鮮滿電力需要의 實情에 適合하도록 事業計劃을 樹立키로되엿다

三、會社名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 滿洲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

四、會社所在地 兩者共同하야 事業을 經營할 朝鮮會社(未定 本店을京城에 置할豫定) 滿洲會社 本店을 新京에置하고 京城其他必要한 地에 支店又는 營業所를 置함

五、組織 朝鮮會社 民事令에 依한 普通法人 滿洲會社 特別法에依한 滿洲國特殊法人

六、事業目的 鴨綠江及圖們江의 水力發電事業及 이에 附帶하는業務

七、資本金 兩者共히 五千萬圓식 一株五十圓으로하고 第一回拂込은 四分一로함

八、出資者內譯 朝鮮會社 朝鮮側二千五百萬圓
長津江 一〇、〇〇〇、〇〇〇圓
東拓 一〇、〇〇〇、〇〇〇圓
送電會社 五、〇〇〇、〇〇〇圓
滿洲會社 滿洲國側은滿洲國政府

九、役員 朝鮮會社 社長一名、取締役五名以內、監査役四名以內 滿洲會社 理事長一名、理事五名以內、監事四名以內 右兩社의役員은 同一人으로서 이에充함

政務總監談

本日朝鮮總督府와 滿洲國政府間에『鴨綠江及圖們江發電事業에關한覺書』의 調印을 了한것은 總督閣下가 미리 唱導하여오든 鮮滿一如의 方針의 顯著한 具現化의 一로서 鮮滿兩地에 잇서서의 産業進展上 참으로 同慶에不堪하는터이다

大抵 右兩江의 包藏하는 電力資源이야말로 眞實로莫大한것이잇서 鴨綠江本流뿐으로도 百六十萬「키로왓트」에 達한다 따라서 兩江의水力을 利用하여 發電을하는때는 其豐富한 電力에 依하여 새로운大化學工業의 出現도 可能하고 이開發은 國策上極히 重要한일이라고 생각한다。然이나 兩江은 國境河川임으로 今日까지 其開發의 길이업섯는데 昨年來 滿洲國과의 사이에 大局的見地에 基하여 協議를 거듭한結果 요행 兩者間에 圓滿히 協定이되여 鮮滿兩地의 二會社로하여금 共同하여 本發電事業의 開發經營에 當하기로되여 朝鮮總督府、滿洲國政府는 協力하여 其事業遂行에 대하여 指導監督에 當하기로 되엿다。

兩會社는 于先鴨綠江 水力發電開發에 着手할터인데 此에依하여 갓가히 鮮滿兩地에 豐富低廉한 電力이 供給되여 鴨綠江岸에 大規模인 重要工業이 勃興할수잇게 될것은 참말 欣快不堪하는바이다

滿洲國産業部談

今回公布된 滿洲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法에 基하여 設立되는 滿洲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는 本店을新京에 置하고 資金五千萬圓、其半額은 政府出資、他半額은 鮮滿民間出資로되는 滿洲國特殊法人이다 그리고 政府는 又同社와 共同事業인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에 對하여서도 其資本金의 半額二千五百萬圓을 出資하는것으로 兩會社의 役員은 同一人으로하여 會社의 資本及負債를 均等히 配分하고 損益을 共有하여 發電力은 滿洲國及朝鮮에 對하여 同一條件으로서 二分의一式 供給식힐 豫定이다 本事業完成되는때는 極히低廉且豐富한 電力供給을 可能케하고 其效果는 莫大하여 滿洲側은 東邊道一圓奉天大連其他南滿一帶에 걸치어 朝鮮側은 北朝鮮平壤京城等의 地方에 잇고 其效果는 滿洲國産業開發五年計劃의 基本動力을 充足식힐뿐만 안이라 滿鮮에잇서서 産業의發展、文化의 進展에 甚大한 貢獻을할것을 잇는다 本會社는 單純한 營利會社가 아니고 實質上國策代行機關인 使命을 갓고 그事業의成否는 日滿을 一體로하는 計畫經濟의 成就를 左右함에 足한 重要性을 가지는것임으로 官民이 모다 本事業의 遂行特히 援助를 액기지안키를 切望하는 바이다

朝鮮도 產業經濟統制

臨時强力機關設置?

時局의急轉的擴大化는 全日本으로하야곰 戰時體制下에두고 政府는 全日本의産業經濟를 戰時體制로 統合케하고저 臨時行政廳의設置를 企圖하고 立案에着手하얏는데 總督府로서도 前線의第一兵站部인 朝鮮의産業經濟의 重要性에鑑하야 中央에 順應하야 朝鮮의金融 船舶管理 貿易 輸送工業 消費等 産業經濟全部門을 統合한强力的 臨時行政機構를設置케할 意向下에 首腦部間에 愼重協議中이다 右는 殖産、農林兩局을 中心으로 鐵道、遞信、內務、警務各關係事務와 資源調査、國家總動員業務等을 一括하야 從來의 事務的 煩雜을 避하고 急迫한事態에 善處케할任務를 가진것이라한다 或은 十月上旬으로되리라한다

全朝鮮經濟界 事變後影響

各商議에 調査依賴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北支事變의 影響調査를 左記와가티 全朝鮮各商工會議所에 對하야 依賴하얏다

一、事變後貨物의配給狀況
二、事變後 主要商品의 卸小賣市場變動과 取引狀況
三、事變後支那商人及苦力等의 移動及 其影響
四、事變後의 金融事情
六、事變後商工業特히 中小商工業에及하는 影響
六、其他

上海經濟 機能停止

【東京電話同盟】最近의 上海方面狀況에 關하야 支那大使館附武官으로부터 外務省에達한 公電에依하면 上海의 全經濟機能은 停止狀態에 드러가 支那當局에서는 協議를 거듭하고잇는바 銀行 其他金融機關은 依然休業、物價는 昂騰할뿐으로 商取引도 事實上 中絶의形態에잇다 또租界內의 支那民衆도 糧食缺乏때문에 外人에對하야 暴行을 加하는者까지잇서 食糧品掠奪騷動이잇다한다

貯銀、新義州에 支店設置決定

貯銀에서는 二十日午前十時부터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新義州에 支店設置件을 附議可決하얏는데 直時總督府에 正式認可申請을하얏고 開業은九月下旬

入超累計 七億七千七百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八月中旬對外國貿易額은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八三、四九三
輸入	一一六、六三六
合計	二〇〇、一二九
入超	三三、一四三

一月以降累計七七六、二七七

◎三島鮮銀行員=去七月廿九日通州事變으로 別世한朝鮮銀行員 三島信彦氏의 遺骸는 二十日午前十時四十分飛行機로 汝矣島着 儞師原에 安置하엿는데 二十六日午後四時 京城公會堂에서 神式으로서 行葬하리라고

(八月十七日) 金物商 京城府漢江通一二 中村梅次郞

"輸送力不足否認"

物價昂騰의原因이아니라고 鐵道當局에서憤慨

物價昂騰의 原因이 鐵道輸送力의 不足에 잇는것가티 宣傳되는모양이나 鐵道當局者는 이 惡宣傳에 憤慨하고 如左히말한다

臨時다이야 改正에 依하야 貨物의 受託制限을 行하고잇스나 이미發表한대로 當局으로서는 될수잇는대로 一般의 不便을 緩和하기에 努力하고 特히 大都市에의 供給物資는 圓滑한 輸送을 期하고 京城 仁川間 平壤 鎭南浦間과如함은 거이平常과 變함업는 狀態이다 其他線도 制限이업는 生活必需品은 勿論滯貨가업고 一般貨物도 될수잇는대로 制限을 解除하고 잇슴으로 特別히 大量의것이아닌限 輸送關係에 顯著한不便은업다 그런대 一部商人間에 物價昂騰의 原因이 鐵道輸送力不足에 基因한것가티 宣傳함은 不可解이다 萬一이런風說을 듯거던 輸送實情을 물어주기를바란다云云

株式 不熄

鐘新落潮 今日의市勢(廿日)

前場低迷 昨後場鐘新이 底引된後 今朝寄付도 依然軟調로 鐘新은二圓一低로 二三〇、九에 寄付하고 東新低도九로反弛한代身에 市勢는依然히 底堅한 편이엿는데 當地도今朝에는 鐘新은다시新低價로 二百二十八圓三의低價를 示現하게되엿스며 이리하야 市勢는鐘新中心으로 低迷裡에 推移되엿다

後場續崩 後場은 鐘新이 依然 新低價에로 續崩함에따라 諸株不勢이엇스나 東新은 比較的 底堅裡에 保合이엇다

統制强化念慮 市勢는 北支事變으로 恐怖의 統制强化부러 이제 戰時立法의 統制强化를 念慮로 崩落한데까지 日字로 滿四十日의 低落은 보엿스나 鐘新中心으로 低落는 向幾하엿다고보아 買方이 買安心尙早라고 自重함을 好機로 賣方은 追擊不急하고잇는데 事實北支事變의 解決이 長期에 亘할것만큼 지금부러 安心買할수업는것은 事實이나 어대까지 이것을 材料로 賣叩할러인가 一部에는 輸入統制强化로 原料商品高가 豫想되는 代身에 輸入不振으로 商品은反低가 豫想되는니만치 今後平和株의 素纖은 素纖될뿐아니라 或은 商品高 株式低의 極端的 跛行時代가 올것이아닌가 念慮하는便도 잇스므로 이도頗慮할만한 理論이나 一方으로 東新買 鐘新賣로 東新은 應然中 底力이强하야 容易히 低價를 不許하는 [illegible]

何든지 今後 東新이 市勢를 「리―드」하느냐 鐘新이 「리―드」하느냐하는 問題는 興味거리다。

雜株一齊軟調

大局的으로보아 投資에 對하야 有力하나 一般落閑氣는 아직 人氣를 轉換시키기에는 이르지못하고 明日에 買할시엇지 今日에는 投賣하다 持株側의 投賣에 無氣力하야 一齊軟調裡에 持落狀을 보이다 今朝의 氣配는 日紡新二低 倉新一低 日東紡新一圓五低 日出紡新八低 日棉新三低 新興人絹一圓低 大陽人絹二圓低 第二帝人一圓二低 人造羊毛五低 東滿一圓四低等으로 纖維株가 一齊低이오 川崎造船一圓三低 商船新一圓低 鋼管新五低 三新二低 三新六低 電化六低 製鐵一圓三低 日立新五低 電工新八低 浦丁五低等으로 工業株도 低調이며 其他電氣新一圓二低 日産一圓低 日産工四五低 에라파이一圓低等으로 諸株가 모두落潮不熄이엇다

國債 戾待賣로 鈍狀

【東京電話同盟】時局의 重大化를 反映하야 戾待賣物이 續出하엿스나 依然鈍狀을 脫할수업서 五分半利는 日興證券의 防戰買도잇섯스나 四分半價는 五錢乃至十錢見落하고 佛貨價는 五錢低이엇다 米貨價는 依然賣買不成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二·二〇

期米 當中限總解合

先限新低價로崩壞

前場續軟 今朝는 氣迷로 大阪地先限三十一圓二十二錢인 七丁反落을 操하고 當中兩限은 昨夕取引員組合에서 決議한 總解合價와如히 當限은三十二圓八十錢 中限은 三十二圓丁의 棒만부치엇 會社로 先限은 當中解合의 影響을 바더든 軟派의 追擊賣로 二十八圓六十一錢인 十五丁의反落으로 寄付하엿다가 阪地二節十錢音下押하엿다가 二十二錢까지 落潮하엿다가 十六錢에 止揚하고 六十錢臺에서 揉合하다가 六十六錢에 止揚하다

後場瓦落

後場은 十丁低로 二十八圓五十五錢에 寄付한後 二圓四十四錢、四十八錢으로 瓦落不勢이엇다

當中畢竟解合

朝鮮에서만 米穀에 對한 暴利取締令을 適用하기로 總督府當局의 意圖가 强硬하다 所謂自發的으로 時局에 鑑하다는 大義名分아래 朝取米豆部取引員組合에서는 當中兩限의 新規賣買를 停止하고 去九日부터 解合을 實施하기로 되엿다 [illegible]

當限 八月限(當限) 三三、八〇 九月限(中限) 三三、〇〇 當地는 左記價格으로 總解合을하기로 決定하엿다 本日 臨時組合員總會를 開하고 愼重히 審議한結果 到底히 圓滿取引의 終了를 바라지못할情勢를 觀取하엿스의 解合賣의 投合이 圓滑치못하엿다 이대로 推移되다가는 [illegible]

先限의今後觀

伯仲格인 當中兩限의 總解合을 본後 先限에까지 그餘勢이미 밋치는 것이아닌가 [illegible]

市場六感

(株)…鐘新은 다시 新低價를 내봣다 先限에까지 그餘勢이미 示現햇스나 戰時體制만으로 도로警戒하든것은 이아닌가 ▲産業統制가 戰捷을目的삼고 出發하고잇는限度에 效果的統制가 期待되어 生産活動과 戰費負擔의 增强에 不可忌이라고 强氣는主張▲事實統制强化의 半面에는 인플레進展이잇고 臨時議會에서 第二次增稅는 問題되지안코 事變公債가 追加된다면 인플레에 拍車를 加할터로 戰時統制는 財界의急激한 膨脹을 破綻업시 維進케하는 消化作用에 不過하리라면 根本은 인플레激化에 잇다고보아 突込을警戒코 戰時統制의 具體的內容을 기다려 行動할수밧게 업을것이다

(米)…問題의 當地當中兩限은 昨夕의 取引員組合으로부터 總解合을하기로되어 當限은三十二圓八十錢 中限은三十二圓丁으로 決定되엿다 時局의 關係로 朝鮮에서만 米穀에까지 暴利取締令을 適用하게되고 新規賣買의停止 結局은 低價解合을 보게되엿스니 [illegible] 天의所爲? 人의所使? ▲아즉도 市勢는 [illegible] 警戒[illegible] (釜山)

正米 清算低로 反落

京城崩落 期米의 總解合으로 當中兩限 賣買不成의 現狀이나 [illegible]

仁川落調 [illegible]

釜山保合 [illegible]

大邱不變 新材料無인때라 期米不透明으로 買方이 [illegible] 一等白米一三、八八

群山軟化 [illegible]

木浦奔落 依然賣買停頓의 閑散市場이나 今朝清算의 一齊低落으로 氣配二十錢의 奔落이엇다 一等白米一三、九〇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海外經濟 (十九日)

[illegible]

銀行券 (十七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神阪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算定 代引 日步◆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東城物價 (廿日)

▲白米(叺、單位圓) 多收穫特 二七〇 一等 二六〇
▲麥粉(二二瓩、單位圓) 二圓四、六〇 카메리야 七、九〇
▲肥料(一〇貫、單位錢) 硫安(各製造) 三、九五
豆粕(安東四ー字) 三、五〇
過燐酸石灰(仁川沖) 二、〇二
▲紙物(單位圓) A模造紙(四六) 一、三七
中質印刷紙(同) 一、一七
[illegible] 一三〇、〇〇
▲燃料(塊、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撫炭二六 二一、九〇
京城檢査木炭一等(二〇瓩)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圓)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百斤、單位圓) 白分蜜 一九、二〇 黑一四、五〇
▲罐物(單位圓) [illegible]
▲海産物(單位錢) [illegible]
▲染料(斤、單位錢) [illegible]
▲塗料(單位錢)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illegible]
▲人絹(單位錢) [illegible]
▲毛織(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illegible]

京城 仁川 益康 全益證券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エ門商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代金引換販賣酬應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